

“아유, 어쩔. 예쁘기도 해라. 여기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젊은 사람은 감각이 다르다니까.”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 괜찮으세요?”

녹차 발 한가운데 박힌 낡은 망루 같은 집을 여름 내내 손보느라 진이 다 빠졌지만, 외벽까지 마치고 나니 제법 그럴싸했다.

“자기 아니었으면 내년쯤엔 철거했을 거야. 아니, 무슨 집이 이런 운을 타고났대? 환골탈태가 딱 이런 거지. 나 여기 차 마시러 와도 되지?”

“그럼요. 자주 오세요. 여기 오게 해준 것도 언니니까 그냥 편하게 드나드세요.”

“아 맞다. 자기 언니는 언제 내려온대? 몸이 안 좋다더니. 이제 곧 추워질 텐데 단열은 괜찮으려나?”

“네. 집도 열추 준비됐으니까 이제 빨리 내려오라고 해야죠.”

“자기도 참 대단하다. 요즘 누가 언니 살 집을 이렇게까지 해. 보통 정성 아니야.”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꼭 언니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 나도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정말. 엄머엄머, 근데 진짜 감각 뭐야? 자기 인테리어 사업해도 되겠다. 진짜.”

카페 언니와 나는 오래 되서 반질거리는 마루가 찌그덕 거리는 발코니 끝트 머리에 걸쳐 앉았다.

“여기에 난간 설치 안한 거 정말 잘한 거 같아. 비탈진 곳에 있어서 여기 앉으면 공중에 붕 뜬 기분이라니까?”

카페 언니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다. 발코니 끝에 앉아서 녹차 발을 내려 본 전경은 탁 트이다 못해 저 아래 벌판까지 쏟아져 내릴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빨간 단풍은 다 지고 이제 은행나무가 제 차례라며 천천히 노랗게 변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녹차 밭 색깔이 원래는 참 좋은데 지금이 제일 별로 같지? 봄 되면 푸릇 푸릇하다가 여름 되면 색이 진해지고 가을 되니 이걸 거뭇거뭇하다고나 해야 할까? 사람이나 나무나 비슷한 거 같지?”

“죽은 녹색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녹색이 진하니까 노란 은행잎이 더 살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도 푸릇푸릇 애기 찾았을 텐데 요즘 사춘기 되더니 코밑도 거뭇거뭇... 저번엔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사타구니 근처도 거뭇거뭇 하더라니까 글썄.”

“아이 참. 언니도 다 큰 앤데 뭐 하러 그건 거 까지 봐요!”

“이 늙 새끼 방안 청소하다가 머리맡에 화장지 치워 놓으면 어찌는지 알어?”

“어찌는데요?”

“괜히 내 앞에서 코를 킁킁 풀어댄다니깐.”

“하하하.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정가위가 사각 거리며 가치를 쳐내는 소리가 비탈진 사이 길로 흘러내려 아침 진한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늦가을이 되었지만 낮에 햇살이 따가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을 시작했다. 여름엔 더워서 잠에 깬데 아침 기온이 낮아지자 이불 밖으로 나서기가 영 못마땅했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에 운무가 깔린 농원 풍경은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 꿈꾸는 기분이었다.

“지금 전정을 해서 면을 맞추어 봐야지 내년 봄 밥상 높이 적당해지는 거야. 안 그러면 허리가 작살이 날지도 모를 일이거든.”

카페 언니가 말해주는 녹차 이야기에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나는 저절로 손길이 빨라지고 있었다.

“언니 저는 녹차가 원래 이 모양으로 생긴 나무인 줄로만 알았다니깐요.”

카페 언니가 녹차밭 구석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녹차 나무야. 말 안 해주면 누가 알겠어?”

언니가 손짓한 곳을 바라보았다. 언 듯 보기에 그냥 나무 같아 보였다.

“신기하다 정말.”

“보기엔 그래도 저 녀석이 켈 행복하지. 지 생긴 데로 살고 누가 철마다 따기를 하나, 싹둑 싹둑 베기를 하나.”

“근데 저 나무는 왜 수확 안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린 위치를 봐.”

나무는 큰 바위 위쪽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저기에서 작업하긴 좀 힘들겠네 진짜.”

“사람이나 나무나 남들이 안하는 짓, 안가는 곳, 누가 보기엔 험한 곳 마다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저렇게 특권이 되기도 한다니까.”

“저처럼 말인가요?”

카페 언니는 나를 찬찬히 쳐다보다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도시처녀가 새까맣게 탄 시골 아낙네 되려고 제 발로 들어왔는데 어떤 녀석이 손길 주고 다듬어 주려고 하겠어? 자기 남자친구란 사람 말이야. 아무리 자기 좋다고 해도 주말 마다 내려와서 집 고친다고 노가다 부려 먹고 이런 촌 동네에 박힌 여자 친구 보러 매주 내려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두 계절 지나면 딴 년이 채 갈 거니까 잘 생각해야 할 거야.”

“뭐 저 여기 아예 눌러 살 생각도 있어요.”

“좀 있다 짚단 옮기고 배수구 작업해야하는 데 얼씬도 하지 마. 괜히 일 가르쳤다가 진짜 눌러 앉을 모양이네?”

“아이 참 오늘 오지 말래는 데도 왜 또 왔어? 나 오늘은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은 봐야지.”

일이 바빠 주중에 찾아보지 못한 엄마 집에 가봐야 하는 일요일인데 이 화상은 고집불통으로 주말마다 내려온다.

“이제 곧 언니 오니까 준비할 게 많아. 그리고 도통 엄마 집도 갈 시간이 마땅치 않고. 자기도 일주일 하루 쉬는데 이렇게 매주 내려오니까 카페 언니가 내 흥을 얼마나 보는지 모른다니까?”

“응, 좀 그렇기는 해. 내가 여름 여기서 목수 질 하느라 휴가도 다 보냈는데 막상 집 완성되니까 온다고 타박하는 거 보면 너 좀 인간적으로 그래.”

“그래도 카페 언니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내가 주중에 모른 척하고 그러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주중이라 봤자 자기는 저녁에 퇴근하니까 내가 가 봤자지 뭐.”

사실 그것은 변명이었다.

” 어이구 내 팔자야. 도끼질 잘하는 돌쇠는 마님이 쌀밥도 주신다더니 그래도 여친 인데 평일에 와서 하루 자고 가면 누가 흥본데?

“에이그.. 이 화상이... 또 그 소리네. 오빠 나 이러려구 만나?”

“응. 그러려구 만난다.”

“오빠는 그러니까 내가 땡길 수가 없어. 음흉 해가지고...”

“원빈이 하면 로맨틱하고 내가 하면 음흉하니?”

“어쨌든 나 엄마 집에서 있는 동안 어디가 있을 거야?”

“진짜 꼭 그래야겠니?”

“아 썸! 엄마 놀래. 엄마가 딱 보면 기겁할 스타일이거든, 오빠는.”

오빠는 입술을 한 치는 앞으로 쭉 내밀었다.

“알았어.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왜 오지 말라는데 와서 이 난리야 사람 난처하게?”

고단한 서울살이에 지칠 즈음 이곳에 내려와 엄마와 근거리에 살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할 수 있으니 시골살이도 덜 외롭게 되었다. 하지만 거리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안전판 구실도 하는 법이었다.

“그래도 큰일 있었던 애니까 니가 좀 잘 챙겨라.”

“엄마 알겠는데 내가 어렵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면 나 진짜 하기 싫어져?”

“그래도 어찌겠니. 이런 건 니가 해야지.”

“뭐 국가에서 누가 법으로 정했어? 내가 하는 일로? 엄마랑 언니 조금만 성질 죽이면 얼마나 좋아. 맨 날 둘이서 전화통만 붙잡고 있으면 다냐구.. 눈만 마주치면 한 시간을 같이 못 있는데...”

“알았다 알았어. 유세 떨어지면 다음 주부터 오질 말어.”

오늘도 오기 전에 묵언 수행하리라 다짐했지만 또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럴 거면 나나 언니나 매 한가지다.

“에이그.. 참말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나 줘요. 정리해 놓을 테니까.”

나는 약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는 바구니를 정리했다.

“저번에 가져온 영양제 다 가져가라. 먹었더니 아주 속이 쓰려. 무슨 약이길래. 사람 잡을 거 같더라.”

오빠가 사준 약이었다.

“나미아미타불... 도대체 날 어디까지 키우실라고... 아이고 부처님.”

난 눈을 질끈 감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지지고 볶았다. 고등어 대가리를 쳐내지 말라고 부탁한 게 너무나도 다행이었다. 도마 위에 올놓고 힘껏 내리쳤다. 기분이 좀 풀렸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빠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였다. 앞 유리로 내다보니 시트를 뒤로 젖히고 한숨 자고 있었다.

“으응... 왔어? 아... 지금 몇 시지? 생각보다 금방 왔네?”

“금방은 얼어 죽을 금방. 미련하게 여기서 이러구 있었어? 피씨방을 가던지 사우나를 가던지. 그런 생각은 아이큐가 딸려서 못 하는 거야 아니면 돈이 딸려서 못 하는 거야?”

“뭐 당연히 둘 다지.”

“터진 입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가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진짜? 웬일로?”

“도끼질 잘하는 돌쇠는 마님이 쌀밥 준다며!”

“네 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어디로 갈갑쇼?”

오빠가 조금만 재미없었어도 하마터면 영양제를 던질 뻔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아 좀 천천히 먹어! 오빠랑 먹으면 내가 다 체한다니까.”

“하하. 버릇이 되나서 말이지. 미안해.”

“오빠 이제 좀 엘레강스 해지자 우리 응?”

나는 오빠 입술에 묻은 소스를 손으로 닦아 주었다. 오빠는 배시시 웃었다.

“오빠 이러려구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거 기대하고 나 좋다고 따라 다니는 거면 꿈 접어. 나 내 한 몸 검사도 힘든 사람이니까.”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냅킨에 닦으며 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니 몸을 왜 니가 검사하니? 내가 검사 할 건데. 난 너 업고 다니려고 만나는 건데 니가 창피하다고 마다하는 거지.”

“나 업어줄 사람 찾으려면 초등학교 앞에서 찾지 오빠를 만나겠어? 적어도 한 열댓 살 연하 만나야지 나중에 관절 아프면 나 업어주지.”

“응 그래 지금 그러다 철렁철렁 당하던지 아니면 너 돈 많이 벌어야겠다. 젊은 남자 만날래면.”

오빠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건 그렇고 언니는 이번 주에 오시지? 내가 데리러 같이 가줄게.”

“아니 됐어. 다리 부러진 사람도 아니고 뭐 하러 와.”

“아이고 이 아까운 사람아. 나 부러 먹어도 암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어. 어차피 짐도 있을 텐데 자기가 들치고 메치고 올 거야?”

“알았어. 고마워. 오빠.”

오빠는 또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나 사실 좀 걱정 되는데...”

“엄마도 그러더니 오빠까지 왜 그래? 뭐 대단한 일 일어나는 거야? 나 원래 지난해부터 여기서 살아보는 거 계획이었잖아. 언니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내가 괜한 말 했어.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 곁을 지킨 사람은 늘 언니였다.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세상일 모르는 애처럼 살았다.

둘은 늘 서로를 걱정했고, 또 늘 다뤘다.

나는 정말 몰랐던 건지, 모른 척했던 건지, 그렇게 천진하게 있었다.

예상보다 짐은 많았다. 오빠가 오지 않았다면 이 녹차 발 비탈길을 어떻게 올랐을까? 오빠도 힘에 부쳤는지 캐리어를 내려놓고 숨을 돌린 뒤 다시 캐리어를 어깨에 걸쳐 댔다.

“그 놈의 바퀴는 바닥 굴러가라고 만들어 놓거 아니야? 아 그냥 끌고 가라고!!”

내가 뚝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냐. 이게 이런 흙길에서 굴리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 고장 나기도 하고. 난 괜찮아.”

“아주 과학적이라서 좋으시겠어요. 의학적으로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오빠 허리하고 바퀴하고 맞교환하는 건 모르지?”

녹차 발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내려놓았을 때 언니의 불편한 시선이 점점 못마땅해지고 있었다. 언니는 언덕을 오르다가 저만치 아래 녹차 발 사이에 놓아 둔 벤치에서 한 숨을 돌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먼저 도착한 오빠가 손걸레를 찾아 가방을 여기 저기 바퀴까지 꼼꼼히 닦고 있었다.

“아이 참. 고만해 고만.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냥 대충 저쪽에 놔둬.”

난 얼른 정수기 쪽으로 다가가서 유리컵에 냉수를 받아 오빠 손에 쥐어 주었다.

“이게 참 오르막길이 만만치가 않구나? 언니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무슨 간병 왔어? 지난 주 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데 나더러 진짜 간병 하라고 하는 소리야 뭐야?”

예상보다 아위고 어두워진 언니의 얼굴을 보니 나 역시 마음이 좀 무거워진 터였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거면 아까 진작 말하지 다 가져다 놓으니까...”

오빠가 나에게 눈치를 주며 손가락을 입에 댔다.

“오르막길이 가팔라서 좀 힘들겠다. 그래도 나름 실내는 신경 썼네.”

“뭐 복덕방에서 나오셨어요?”

언니는 나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다.

“여러모로 고마워요. 여기도 직접 작업했다고 하시던데.”

“아... 네 별거 아니에요. 은미가 살 곳인데 당연히 제가 신경 써야죠.”

“일주일에 한번 씩 오신다고 들었는데 자고 가시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이런 시골에서는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아.. 네... 어차피 전 아직 일요일만 쉴 수 있기 때문에 자고 가진 않을 거예요.”

언니 집을 정리하던 나는 왠지 뭔가 생각 난 듯 일어서서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다음 주부터 토요일 밤에라도 와. 언니 불편하니까 저기 읍내 모텔에 서라도 자자.”

오빠가 두 눈을 있는 힘껏 동그랗게 뚫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녹차 끓일 준비를 했다. 아침 공기가 꽤나 차가워 졌지만 언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다. 어스름 아침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어김없이 가을 안개가 집 아래 녹차 밭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얕은뱅이 찻상을 발코니 한가운데 두고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선방 위에 올려둔 찻잎 통 뚜껑을 여니 약간 눅눅한 풀냄새가 났다. 끓인 물을 식힐 머그컵과 제멋대로 빗은 것 같이 투박하지만 어쩐지 귀여운 잔 두 개도 찻상에 올려놓았다.

“물을 너무 끓이면 뚱어.”

뒤를 돌아보니 언니가 문간에 기대 서 있었다. 잠옷 위에 가디건만 대충 걸친 얼굴이 아직 덜 깨어 있었다.

“응 언니 일어났어?”

언니는 주전자가 올려진 가스레인지의 불을 탁 끄며 말했다.

“어쩐지 첫날이라 잠이 잘 오질 않더라고.”

“언니 그거 지금 끄면 금방 식어. 우리 발코니에서 마실 건데 좀 뜨겁게 해놔야 천천히 따듯하게 마시지.”

“날도 찬데 왜 밖에서 마시려고?”

“아이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나 하자는 대로 좀 해.”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찻잎 통에 코를 가져다 댔다.

“차에서 왜 이런 눅눅한 흙냄새가 나니?”

“언니가 차 맛을 알아? 그래도 내가 두어 달이지만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내공이 쌓였다구.”

나는 쟁반에 주전자와 찻잎 통을 들고 언니가 뒤를 따랐다. 난 뭔가 보물 상자를 열어보라는 말투로

“언니 문을 활짝 열어 주세요!”

언니는 내가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발코니 앞에 서서 발아래 펼쳐진 운무를 쳐다보았다. 난 그 뒷모습을 기대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춥네.”

“응 그게 다야?”

주전자를 얹은뱅이 찻상에 내려놓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마룻바닥이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거슬렸는지 아니면 차가운 감촉이 싫었는지 언니는 한 발짝 내딛으려다가 다시 발을 모았다. 나는 급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걸쳐 놓은 무릎담요를 가지고 나왔다.

“언니 이거 둘러쓰고 앉아 봐. 이렇게 알싸하게 약간 추운 날 밖에서 먹는 차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알려 줄게.”

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돌려 녹차 발을 둘러보았다.

“언니 환상적이지? 내가 이 모습에 반해서 꼭 여기서 살아보리라고 결심한 거잖아.”

언니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뜨거운 물을 옮겨 담은 머그컵 잔에 손을 감쌌다. 무릎 담요 밖으로 빠져나온 발가락이 추워 보였다.

“언니 아무래도 좀 춥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그럴까?”

“언니는 어제 잘 왔대? 첫날이라 자는 데 괜찮았을라나 몰라?”

“네 어제 피곤했는지 지금 또 자요.”

나는 예의상이라도 언니를 카페 언니에게 소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래. 꼭 쉬시라 그래. 그래두 이렇게 공기 좋은데서 좀 지내면 회복이 빠르겠지. 근데 어디가 아팠다고 했지?”

“그게 좀... 그러니까...”

“아 참 내 정신 좀 봐. 자기 언니 오면 준다고 내가 챙겨 놓은 녹차 깜박 잊고 있었다.”

카페 언니는 서랍을 열어 뭔가 뒤지는 듯 하더니 동그란 박스에 넣어 둔 차를 나에게 건넸다.

“이거 내가 따로 소량으로 만든 건데, 언니랑 마시고 평가 좀 해줘. 이제 자기도 녹물리에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

“어머 언니 이런 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할게요. 고마워요.”

“이게 곡우 이전에 딴 첫물차인데 아무래도 뽕은맛이 덜하고 감칠맛이 난다니까. 사람이나 차나 다 처음이 좋은 거야. 에휴.. 내 첫물 차 따먹은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아!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후에 나른한 햇볕을 받은 발코니 마룻바닥이 등을 눕혀도 좋을 만큼 따뜻해지자 나는 마른 걸레를 가져와 먼지를 쓸어 냈다. 이 햇빛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몇 달 뒤에야 다시 만날 햇빛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제일 숨이 많이 죽은 쿠션을 골라 머리에 베고 누웠다. 집 앞에 솟아 있는 노란 은행나무 잎

이 파란 하늘색에 가위로 오려 났다 다시 붙인 것처럼 선명했다.

오기를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바깥으로 내 던져졌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로도 마음이 조금하지 않은 오후였다. 수입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고 틈틈이 내가 쓰고 싶던 소설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시작치고는 괜찮다는 안도감이 밀려 왔다.

깜박 사이 잠이 든 것 같은데 내 코를 예민하게 자극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잠에서 깼다. 누가 장난으로 강아지풀을 내 코끝에 갖다 댄 것 같아 코를 비비며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난 나 때문에 놀랐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언니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

“따라와 보면 알아.”

“나 아직 씻지도 못했어.”

“뭐 지금 내가 시내 쇼핑가자는 것도 아닌데 씻긴 뭘 씻어.”

언니는 여기 온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두운 커튼을 쳐 놓고 누워만 있었다. 이래서는 오늘 밤도 큰일이었는데 다행히 언니를 끌고 나올 미끼가 생겼다.

언니는 누에고치가 빠져 나온 듯 이불을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몸만 쏙하고 나왔다.

“오늘 밖에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따수운데 어둡게 있으면 안돼. 빛을 받아야 기분도 좋아지지.”

“누가 몰라서 이러겠니. 괴로운 건 나니까 그만해.”

난 잠깐 멍칫하다가 말을 이었다.

“아이참. 이번엔 나 믿어도 돼. 얼른 와봐.”

언니는 의자에 한 참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그때 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네... 뭐 그러구 있지요.”

잠깐 듣고 있던 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누가 쓰기 싫어서 안 쓰나요? 지네들 더러 써보라고 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언니는 전화를 끊고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언니 아직도 그쪽에서 연락 와? 당분간 하지 말랬잖아.”

“미친 새끼들 지금 써야 제일 잘 써질 거라고? 신경 쓰지 말고 나가자.”

“으응... 그래.”

오솔길처럼 이어진 녹차나무 사이를 걸어가다 나는 조용히 언니에게 속삭였다.

“언니 여기서부터는 진짜 조용해야 해.”

“뭔데?”

“가보면 알아.”

나는 척후병이라도 된 냥 그곳 주변에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을지 둘러보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녹차나무 뺨뺨한 틈 사이로 이제 갓 태어난 것만 같은 새끼 고양이 네 마리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어머 이거 뭐야?”

언니 눈에 빛이 감돌았다.

“신기하지. 주변에 어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위협을 느끼면 새끼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들었어.”

쩍쩍 거리는 핑크빛 주둥이와 도장이라도 찍어 가고 싶은 발가락을 허우적 거리는 모습에 언니도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언니 진짜 귀엽지?”

“그러게... 그런데 어쩌다 이런 곳에 새끼를 낳았을까?”

“그래도 어미가 머리가 좋은지 꽤 안락한 장소 같지 않아?”

언니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넌 어쩔 그런 말을 하니?”

“왜? 뭘 말이야?”

“여기가 안락한 곳이라고?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질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긴 하겠지만 아까 어미를 쫓아서 오다 보니까 발견한 건 맞지만 여기 오니까 어미가 절대 곁을 주지 않던데?”

“새끼를 데리고 들어가면 어미도 따라오겠지.”

“집에서 키울 거야?”

“봤는데 안 그래? 넌 어쩔 애가 무책임하니?”

“책임? 내가 낳은 거야? 어미가 사람 손을 전혀 안타던데 진짜 따라 들어올까? 괜히 만졌다가 어미랑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땐 내가 키워야지.”

언니는 덩싹 새끼 한 마리를 집어 들었다. 갑작스럽게 몸이 붕 뜨는 것이 어떤 건지를 느낀 것처럼 새끼 고양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 이쁜 거 봐. 사람보다 낫지 않니?”

“사람도 애기 때는 못지않지 않나?”

언니는 새끼 네 마리를 데리고 들어 왔고 나는 다른 문제보다 언니가 좋아하는 모습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어미는 들어오지 않았고 밤이 세도록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니 다음 날엔 보이지 않았다.

언니는 밤새 마룻바닥을 찌그덕거리며 돌아다녔고 밖에서는 어미가 우는 소리 안에서는 새끼들이 젖 찾는 소리가 뒤섞였다.

“언니 어제 밤 세도록 어미가 울던데 괜찮을까? 지금이라도 가져다 놓는 게 좋겠어.”

“이제 겨울이 코 앞인데 넌 하루 잠 좀 못 잤다고 그러니?”

“아니 애들 어제 보니까 우유도 제대로 잘 못 먹더만.. 사람 우유 먹으면 설사하지 않아?”

언니는 별말이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고양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앤 그래도 사람 손을 좀 타는데 나머지는 야생성이 있나봐.”

언니는 나를 쏘아보며

“넌 정말 매정한 애로구나? 그냥 쫓아낼 연구만 하고 있는 거니?”

“아니 그래도 키우려면 기본 정보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 얼른 가서 고양이 우유사와.”

“응?”

“고양이 우유 사오라고.”

“어디서? 여기 동물병원 가려면 한 참 나가야 해.”

“카페 사장한테 좀 이야기 해봐.”

“흠.. 알았어. 내가 일단 읍내라도 나갔다 올게.”

녹차 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핸드폰으로 가까운 동물병원을 몇 군데 검색해서 전화를 해 보았다. 시골이라 대부분 소나 돼지를 치료하는 곳이었고 몇 군데는 치료는 가능한데 고양이 분양은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했다.

“뭐야? 그걸 덩석 들고 오면 어떻게 해.”

카페 언니는 당황한 듯 말했다.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음.... 그래 그럼 내 차 타고 한번 나가보자. 뭐 어쩔 수 없지.”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기는... 어차피 나도 좀 나갈 일이 있었어. 자기랑 나랑 드라이브도 갈 수 있으니까 좋잖아?”

“제가 나가면 커피 사 드릴게요.”

“그래 좋다 좋아. 맨 날 녹차만 마실 수 있나, 바람도 좀 피워야지.”

“이제 오면 어떻게 해? 애들 이제 지쳐서 울 힘도 없나봐.”

깊이 한숨을 깊게 모아 단전 밑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처녀 가슴에서 짜오느라 늦었다. 언니 젖이라도 짜 먹이고 있지 그랬어?”

생각보다 고양이 분유를 사는 것은 무척 힘들었고 시간이 지체되어 카페 언니는 커피도 못 사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언니는 들은 척 마는 척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을 너무 끓이면 애네들 입안 다 헐겠다.”

나는 물이 끓기 전에 가스레인지 불을 탁 껐다.

“가만둬. 끓인 물에 녹였다가 식혀서 줄 거야. 이런 촌 동네 분유 소독해서 먹지 않으면 뭘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어.”

“응.. 그래 언니 맘대로 하시고... 난 들어갈 볼라우.”

난 내방 문을 닫고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뭐 어찌 되었든 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만족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피곤한 하루였다고 느껴졌는지 초저녁까지 잠에 들어버렸다.

“은미야 너 이리 나와 봐.”

“아. 왜 또?”

“애 이거 왜 이러니? 코로 다 나오고 있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빨리 동물병원에 전화해봐.”

“이 시간에 무슨 동물병원에 전화하라고 그래? 인터넷에서 검색해봐. 새끼 고양이 젖 먹이는 방법 나올 거 아니야.”

“아까 찾아보고 한거야.”

“아 그럼 언니가 전화해봐. 왜 맨 날 나한테만 시켜?”

“너 이제까지 잠만 자던 애가 너한테만 시킨다고 말할 자격 있어?”

“으이구.. 알았어. 이 시간에 누가 전화 받겠어.”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그나마 고양이를 좀 본다고 하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몇 군데는 예상대로 진료시간이 끝났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한 군데가 전화를 받았다.

“아이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도 안 들어가 봤어요? 웬만하면 함부로 좁냥하지 말라고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미도 없어서..”

“어미가 새끼들 찾다가 없어졌다면 또 무슨 어미가 없어서 데려왔다고 말 바꿔요?”

타박 할 거면 그냥 끊어라. 이 잘난 녀석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필기 할 거 준비해봐요. 나 두 번 말 안할테고 두 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아니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전화 끊으면 누가 또 받아 줄지는 알 수 없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그 새끼 고양이는 말이죠, 처음부터 입에 젓꼭지를 넣고 밀어 넣으면 그렇게 삼키지 못하고 코로 분유가 나옵니다. 잘못하면 폐로 넘어가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입술로 흘려줬다가 짹대면 ”

수의사가 투머치토커인가? 아니면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성향인가 그만 해도 될 만 한데 십 분을 넘도록 설명을 하고 있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툭 끊어 버렸다. 대개 싸가지가 없는 수의사임에 틀림 없었다.

나는 얼른 거실로 나가 그 싸가지 없는 수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고양이는 입을 싹룩거리며 젓꼭지를 쪽쪽 빨기 시작했다.

언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 몰라 이제 고양이까지 키우게 됐어. 그것도 막 태어난 새끼 네 마리 나.”

핸드폰 너머로 오빠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키우려면 보통 아닐 텐데 새끼 때는 배고프면 수시로 울지 않아?”

“그렇다니까. 동물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막 태어난 새끼들은 수유 간격이 좀 촘촘해야한대. 한 달 동안은 이 짓하고 하고 있게 생겼어.”

“언니는 밤에 잠 좀 주무시나?”

“그러니까 말이야. 밤새 잠도 안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 보다가 아침이면 잠을 잔다니까. 걱정이야.”

“그건 그렇고 나 이번 주엔 토요일 날 간다?”

“토요일 일 안 해?”

“일 하지.”

“근데 어떻게 토요일 날 온다고 그래?”

“네가 오랬잖아?”

“언제?”

“토요일 밤에 와서 읍내 모텔에서 자기로 했잖아.”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낮에 차에서 만지려고 하면 나더러 짐승이래며? 사람답게 밤에 만지려고.”

“미쳤어, 미쳤어..”

“응. 나 미치겠어.”

평소보다 약간 늦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조심스레 고양이들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았다. 며칠 사이에 살이 올라 손에 쥐는 감촉이 든든해져 있었다. 언니가 새벽에 우유를 한 번 먹었는지 배가 둥실해져 잠에 빠져 있었다.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제 막 잠들었을 언니가 깨지 않도록 까치발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발코니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쏟아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햇살에 부딪쳐 반짝거리는 은빛 장관이 나를 반겼다. 창앞에 멎힌 이른 새벽안개가 얼음이 되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일어났으면 못 봤을 풍경이었다. 나는 난간도 없는 발코니 끝에 위태롭게 발을 딛고 한참 동안 아래를 바라보았다. 마치 햇빛에 반사된 그 은빛 파편들을 온몸에 받기라고 하려는 듯 크게 팔을 벌려 기지개를 켜다.

“정말 영화야 영화... 내가 사진 재주만 있었다더라도 꼭 찍어서 액자에 넣어 뒀을 텐데..”

카페 언니가 분주히 창앞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쵸? 나도 아침에 숨이 탁 멎더라니까요. 서리 내린 녹차 발은 이게 처음이라서... 난 눈 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런 풍경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카페 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나야 뭐 매년 이 때쯤이면 항상 보는 풍경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자기 말하는 거야 자기.”

“네?”

“아침에 발코니 나와서 서 있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아!.. 하하하.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해 뜨기 전에 언니도 나와 있던데?”

“언니가요?”

“그래.. 아직 해 안 떠서 어두컴컴한데 자기 집 발코니 불이 탁 켜지더니 언니가 나오더라고”

“그래서요? 풍경이라도 내려다보던가요?”

“응 그땐 아직 어두워서 뭐 보이는 건 없었을 텐데.. 안개가 사알짝 끼어 있는데 언니가 어둠속에서 하~얀 잠옷을 입고 긴 머리를 출렁 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이 불빛에 비춰 보이는데.....”

“으... 언니 무서워요.”

“으응? 하하하 좀 그런가? 난 그런 뜻 아니었는데.”

“괜히 소름 돋았다구요.”

난 잠깐 생각에 잠겼다.

“언니 좀 있다가 내가 전화 하면 한 번 올라올래요? 내가 쿠키 구워서 언니 한번 대접 할게요. 우리 언니도 한번 보구요.”

“그래? 그래도 되겠어?”

“안될게 뭐예요? 온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소개를 못한 게 맘에 걸린 것도 있구요.”

녹차의 은은한 풀냄새가 쿠키의 고소한 냄새와 어우러져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게 우리 보성 녹차고 이게 일본 녹차인데 한번 비교 좀 해봐요.”

카페 언니가 건넌 찻잔을 코에 대고 향을 맡아 본 뒤 입에 조금 적셔 보았다.

“이쪽계 조금 풍부한데도 깔끔하고... 이건 조금 풀 향이 강한데 감칠맛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자기는 아주 녹물리에 다 됐다니깐. 풍부하고 깔끔한 게 우리 보성 녹차고 이건 일본차예요. 우리 거 좋은 점이라면 일조량도 많고 해풍에 자라서 풍부한 향이 난다니깐. 그럼 이번엔 언니 분이 이거랑 이거랑 한번 마셔 보시겠어요?”

언니는 녹차를 입안에 살짝 머금은 채 생각에 골똘히 잠겼다.

“이건 보성 녹차보다 좀 은은한 것 같은데요?”

“어썸 자매가 이렇게 섬세하고 감각적일까? 그래서 글도 그렇게 잘 쓰시나 봐요. 이 은은한 것은 우리나라 건데 하동 꺼예요. 야생재배가 많아서 더 은은달까.”

“그냥 대충 말한 건데요. 커피라면 제가 좀 잘 알긴 하지만... 녹차는 여기 와서 동생이 몇 번 타줘서 마셔보긴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게 언니에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나로서는 꽤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간 것이 무척 다행으로 느껴졌다.

“자기들이 와서 내가 얼마나 요즘 활기가 생겼는지 몰라.. 여기가 시즌 아니면 적막강산이거든... 더군다나 지금은 녹차일도 제일 한가할 때라.. 자기들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혹시 전에 이곳에 돌아다니고 있던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는 별 말 안하더니 언니는 내내 그 어미 고양이가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응.. 들었어요.. 그 새끼 고양이 낳고 간 어미.. 나도 요즘 통 못 봤네? 고양이가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는 애들은 아닌데...”

“제가 여기저기에 사료 놓아 봤는데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서요.”

“으응... 그제... 사실 나도 사료 놓여 진거 보긴 했는데.. 사료 봐두면 쥐가 났어서...”

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 하신 거라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쨍하고 살얼음이 끼어버린 것 같았다.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창고에 녹차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유.. 뭐 사실 녹차 밭에는 쥐가 잘 없어. 채소밭이나 있지. 쥐가 좀 있으면 어때? 고양이 먹이 주면 없던 고양이들도 꼬일 텐데... 이래저래 나쁠 거 없네.. 호호호.”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카페 언니가 돌아가고 나는 주방을 정리하며 애써 분주히 돌아다녔다. 말을 행동으로 감추려 했지만 정리가 끝난 후 소파에 앉았을 때 한마디가 기어이 나오고 말았다.

“언니 그렇게 너무 민망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언니는 창밖을 바라본 채로 머그컵에 커피를 훌쩍 거리며 대답했다.

“그래도 저 분이 우리 여기 살도록 많이 도움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굴러온 돌이니까 여기 법칙대로 따르며 살아야지.”

언니는 일어나서 컵을 싱크대에 딱 놓고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 살살 걸어 다녀 봤더니 영 못쓰겠더라.”

“또 뭐가?”

”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으니 사람도 안 달라붙고 고양이도 안 달라붙지.”

“뭐 언니 이야기야?”

“요즘 웬만하면 더 고양이 보금자리랑 사료 놔두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죽 했으면 그 어미 고양이가 인심 사납다며 자기 새끼들 놔두고도 없어져 버렸을까.”

“아! 역시 글 쓰는 사람이라서 논리가 아주 신박하네. 아주 기적의 논리야.”

“그럼 나 때문에 어미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거니?”

“내가 고양이야? 개 맘을 알게? 손 씻으면서 컵도 같이 씻으면 손이 닳아?”

언니는 물 묻은 손을 탁탁 털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위잉... 처거덕.. 위잉... 처거덕

프린터가 열심히 종이를 내뿜는 소리 밤 귀 민감한 언니에겐 신경이 쓰였나 보다.

“뭘 뽑고 있는 거니? 밤이 늦었는데.”

“응 이번에 내가 쓴 소설 초고인데 컴퓨터로 하는 것 보다 뽑아서 체크하면서 하려고.”

언니는 앞 몇 장을 손에 쥐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무슨 내용인데?”

“응..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모와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무인도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적 승리를 이루어 내는 내용이야.”

“음.. 판타지네?”

“판타지는 아닌데?”

“현실감이 없으니 판타지인거지. 뻔한 클리셰고.”

난 확 그냥 원고를 뺏으려다 그래도 언니가 내 글을 읽어 준다는 게 나에게 손해 될 것은 없어보였다.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라... 이거 기득권이 피지배계급에게 억울하면 출세하란거랑 뭐가 다르겠어? 진정한 작가라면 소수자 약자들이 처한 시스템의 불합리 계급구조의 억압 같은 것을 파헤치는 쪽이 그 역할에 충실한 거지.”

“언니야 말로 기득권 아닌가? 명문대학 출신에 바로 등단하고 주목도 받았으니까 말이지. 언니가 그런 고난을 겪어 보고 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공감 능력 그리고 시스템의 오류를 읽는 것은 나 같은 지식인이 해야 할 의무인거야.”

“아이고 알았어. 언니 그러니까 나 같은 초짜 무명작가한테도 좀 공감해주고 같잖지 않지만 내 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될까요?”

언니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기고 전에 뒷장을 신경질 적으로 넘기다가 이내 내 원고들을 바닥에 탁 하고 던졌다.

“맞춤법이나 잘 알고 글을 쓴다고 해라. 모르겠으면 적어도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보든지.. 이게 뭐니? 몇 일? 손가락? 그러기에 이과 애가 뭐 하러 글 쓴다고 설레발쳐. 괜히 창피 당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야. ‘몇일’은 틀리고 ‘며칠’은 맞는데 왜 ‘몇달’은 맞고 ‘며달’은 틀린 거야? 그리고 언니는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발음해?

“훗! 일부러? ‘며칠’은 관용구로 굳어진 거고 몇 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은 된 음이랑게 언어의 미학을 헤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쓰는 거지.”

“뭐 동물농장에 두 발 달린 짐승은 적이다. 하지만 날개가 달린 것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규칙 놀음이야? ‘짜장면’도 ‘자장면’이라고 우기다가 찌그러지더니 그럼 ‘똥’도 혐오스러우니까 ‘동’이라면 부드러워지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편집자가 보자마자 니 글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테니까.”

언니의 마지막 말만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에이그 관둬. 어쨌든 언니 도대체 엄마 집은 언제 갈 거야? 나 내일 가는 날인데 내일도 안갈 거야?”

“차도 없는데 어딜 가?”

“난 그럼 차 있어서 가? 그러니까 음주 운전은 왜하니? 차만 망가져서 다

행이지,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 했어.”

“넌 피상적인 사건의 표면만 보는 애라서 작가는 힘들 거야. 내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 시스템의 부조리를 봐야지.”

언니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쿵 하고 닫았다.

“어이구 이면의 부조리 두 번 봤다가는 마더 테레사 되겠다.”

나도 원고를 주워 들고 내 방문을 쿵 하고 닫았다.

“아이고 뭐 하러 왔어? 당분간 폭 쉬라니까.”

엄마는 관절 수술을 한 다리를 절뚝이시며 주방을 분주히 오가고 계셨다.

“엄마 앉아 계세요. 뭐 찾는 지 나한테 그냥 말해.”

엄마는 내 말은 귀에 안들어 오는지 바쁜 손놀림으로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는 홍삼파우치를 두 개 꺼내어 물에 담궜다.

“어디 불편한 건 없고?”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은미가 꽤 신경 썼어.”

“그래도 애미가 옆에서 해주는 게 낫지 은미가 뭘 할 줄이나 알아? 이럴 때 일수록 잘 먹어야하는데 내가 너 온다고 밀반찬 만들어 났으니까 대충 사먹지 말고 꼭 여기서 가져다 먹어라.”

“엄마! 의사 말 못 들었어? 웬만하면 무리한 일 하지 말라고 한 거? 이러다 아프면 그 돈이 더 들어. 요즘 잘 나오는데 갓김치까지 담고 난리야!”

나는 식탁에 올려진 김치통을 바라보다 화가 치밀었다.

“그래.. 그래도 엄마 갓김치가 입맛 없을 땐 최고지.”

언니가 엄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재는 엄마가 뭐 해줘도 맨 날 잔소리지. 이 애미가 그럼 산송장처럼 가만히 있어야겠니?”

“그러면 아프다는 말을 말든지. 지금 몇 달 동안 응급실만 몇 번째야? 그 좌골신경 수술 한 것도 의사가 쪼그려 앉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낯을 일이 있어?”

“아주 내가 재 때문에 몇 달 동안 늙었다. 늙어. 응급실 몇 번 쫓아 왔다고 아주 유세가 유세가 얼마나 심한지... 아유.. 우리 작가님은 내가 옆에 두고 챙겨줘야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아이구 내 정신 좀 봐. 물 끓는 것도 저 애 때문에 깜박했네.”

파우치를 넣은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 나는 급히 불을 껐다.

“은미가 그거 빨리 식게 찬물 좀 틀어서 거기에 잠깐 담가라.”

나는 양푼에 찬물을 받아 파우치 두 개를 가라 앉혔다.

“다음에 올 때는 속옷이랑 빨래감 가져 오거라. 거기 처녀 둘이 산다고 누가 뭘 짓을 할지 모르는데 빨랫줄에 그런 거 펄럭거리는 거 아니다. 내가 손 빨래해서 뽕뽕 말려 놓을 테니 그렇게 해라.”

“어지간히 하세요. 요즘 세탁기에 넣으면 다 마르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해.”

“그게 빛에 말려야지 세탁기에 마른다고 되니?”

난데없는 언니가 그런 말을 해서 약간 놀라웠다.

“그래? 그럼 언니꺼 언니가 엄마한테 가져오던지 아니면 빨래 줄에 빨던지 알아서해.”

“아 내 정신 좀 보라. 내가 은행 주워 놓은 거 삶아 났거든... 혈액 순환이 잘되어야. 글도 잘 써지지.. 잠깐 기다리거라.”

엄마는 뒤편 발코니 쪽으로 들어 가셨다.

“언니! 자꾸 엄마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받아 주면 신나서 다음번에 두 배로 한다니까?”

“넌 어떻게 사람 속마음도 모르니? 엄마가 해준다면 조용히 고마워해야 엄마 마음도 좋고 존재감도 생기는 거야. 아흔 부모가 일흔 자식 발 씻겨 준다는 말도 못 들어 봤어?”

나는 어느 정도 식은 홍삼 파우치를 가위로 잘라 컵 두 잔에 부었다.

“아이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이걸 두 잔에 나눠?”

엄마는 잔 하나를 집어 들어 다른 잔에 부어 넣고 언니에게 건넸다.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쓰겠니? 어여 마셔라.”

나는 빈 파우치 두 개를 겹쳐 잘린 쪽을 입에 물고 쪽쪽 거렸다.

“이제 이 애미는 니가 시집가는 것만 보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어. 맨날 글 쓴다고 이렇게 몸 축나고... 그 글 쓴다는 게 얼마나 감정을 소비하는 건데... 에이그 딱한 것...”

“그게 작가의 운명인걸요. 다 사명감 아니면 쓰기 힘든 거라서..”

“사명감이 뭘 소용이다니... 여자 인생 뒤웅박 인생, 남자하나 잘 만나서 애 낳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여성들이 억압 받고 차별 받는 거예요. 난 그걸 깨기 위해 글을 쓰는 거구요.”

“엄마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고 올해는 꼭 결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여자나이 이십대 넘어가고 삼십대면 이미 물이 간 생선이야.”

“엄마. 어쨌든 엄마는 작가 딸래미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생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지 엄마 모르세요? 내가 받은 상처 따윈 엄마는 다 잊은 거예요?”

“나 때문에 시집 못가는 거라니?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내가 널 이 만큼 키워 났으면 뭐가 모자라다고 니가 시집을 못가니?”

“아. 엄마 그만해요! 내가 이래서 엄마 안만날려구 하는 거라니까. 나 집에 가서 약 먹어야겠어요. 엄마만 보면 공황발작 일어날 것 같다구!!”

나는 여전히 한 방울도 나오지도 않는 홍삼 파우치를 빨며 한쪽에 서서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도 예상 시간을 넘지는 않았다.

“오빠. 어째 좀 알아 봤어? 오빠 바쁜데 미안해.”

밥솥에 물을 맞춰보고 그 위에 녹차를 살짝 뿌린다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한꼬집 덜어내고 있었다.

“응. 요즘엔 중고차 앱으로 편하게 알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 내가 몇 개 찍어 놓은 거 조금 있다 카톡으로 날릴 테니까 니가 맘에 드는 걸로 말해줘.”

“아이 번거롭게 뭘 그래. 어차피 내가 차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디자인이나 색깔은 니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초보라도 너무 작은 차는 안전에 문제 있지 않을까?”

“시골 길 살살 타고 다닐 건데 무슨... 그리고 요즘 경차도 다 안전 사양은 잘 갖춰 놔다더라.”

“그것도 그건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언니랑 세 명이 타고 다닐 일도 많을 텐데 너무 작으면 힘들잖아. 특히 어머니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여자 세 명이 얼마나 공간 차지한다고. 아무튼 내가 말한 그 차종으로 해서 오빠가 연식이나 킬로수 보고 적당히 골라.”

“알았어. 그럼 내가 이번 주말엔 그 차타고 내려갔다가 열차로 올라오면 되겠다.”

면허 따지는 좀 됐지만 드디어 내 차가 생기게 되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게 됐다.

“내차는?”

오빠가 타고 오겠다는 내 차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오빠는 그냥 자기 차를 타고 내려왔다.

“응. 네가 내 차 타고 다녀.”

“뭔 말이야? 어디서 내 차 옛 바꿔 먹고 오빠 차타래?”

“아무래도 어머니 무릎 때문에 니 차로는 좀 힘들 것 같어. 무릎도 잘 안 굽혀지시고 좌골신경도 안 좋으신데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만 안 좋아도 많이 아파하실걸?”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그 내가 짬해 놓은 그 차는 안산거야? 그리고 오빠는 무슨 차타고 다니려고 그래?”

“아니 샀지. 당연히 내가 그 차타고 다니면 되고. 난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혼자타기엔 좀 컸지.”

“오빠가 분홍색 경차 탄다고?”

“뭐 어때? 내가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 합치면 어차피 니가 또 탈 텐데.”

“아이구! 오셨네?”

카페 언니가 주차장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했는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 왔다.

“안녕하셔요. 사장님?”

오빠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했다.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누구랑 합친다고 그래? 아 정말 짜증나.”

“아 왜 또... 그냥 고마워 그러면 덧나?”

오빠가 사장님 눈치를 보며 나에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오빠 이러면 내가 뭐 막 눈물이라도 흘리고 품에라도 안길 줄 알았어?”

“아이고 내 정신... 말 들 나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살해요.. 뭐가 됐든 살살.”

카페 사장 언니는 또 쫓겨나듯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너도 좀 너무 했지.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사이 무 자르듯이 자꾸 이래야 속이 시원하니? 집 고칠 때도 남자친구 노가다 일당 주는 애가 어딴니? 그

때 받은 일당 좀 보태서 좀 더 큰 차로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더니.. 나도 사실은 지금 내차 회사 다닐 때는 별로 쓰지도 않아서 네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생각하다 못해 이렇게 한 거야.”

“아 내가 용도에 맞춰 쓸 거 내가 결정하는데 오빠가 무슨 권리로 막 이렇게 맘대로 정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하고 안살아도 괜찮아. 니가 싫다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니랑 살겠다고 미끼 던지는 거 아니야. 그냥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몰라 알어서 하던 지 말던 지 다 지 멋 대로지. 다음 주에 꼭 내 차 가지고 내려와.”

나는 획 토라져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기야 왜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남자가 아주 됐구만 됐어. 내가 여름부터 지켜봤는데 저만한 남자 없어. 자기 그렇게 튕기고 못되게 굴다가 저 남자 획 날아가 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야.”

“언니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개념 안 심어 놓으면 나랑 살아도 문제 다른 여자랑 살아도 문제니까 아주 지금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런 남자 호구 기질이 있어서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도 퍼주기만 하다가 아주 폐가 망신할 팔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죠. 아무래도 난 내가 저 녀석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부 사이에 돈 문제 멍텅구리처럼 티 미하게 해놨다가 내 돈 니 돈 따로 없는 것처럼 굴면 어떻게 해요?”

“와~~!! 졌다 졌어.. 내가 자기한테 졌어.”

“깹!! 엄마! 이게 뭐야?”

이른 아침 들려오는 비명에 나는 혼비백산하여 거실로 뛰어 나갔다. 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고 바닥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아... 빨리.. 빨리 내 방에서 약 가지고 와..”

난 그게 어떤 약인지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냉큼 언니의 방에 서랍을 열어 약을 챙긴 뒤 언니를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받고 언니에게 약을 건넸다. 언니는 손이 차가워 졌고 숨이 막히는 듯 몰아쉬고 있었다.

“나 속이 메스꺼워 어지럽고...”

“언니 숨을 깊게 천천히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내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

“저것 좀 안보이게 빨리 치워...”

“언니 그냥 이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언니를 부축했지만 언니는 도무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겨우 언니를 침대로 앉히고 물었다.

“언니 나 봐봐. 뭐가 보여? 이제 안전해. 약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 아직 어지러워.”

나는 호흡이 돌아오는 언니를 바라보다 거실로 나갔다. 거기엔 네 마리 중 한 마리 새끼 고양이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 있었다. 요 며칠 전부터 부쩍 자란 새끼 고양이 들이 배를 뜨고 걷기 시작하더니 보금자리에서 이탈해 초

겨울 아침 찬 바닥에 얼어 죽은 것이다. 어제만 해도 몽글몽글한 인절미 같았던 새끼 고양이는 영혼의 물기가 다 빠져 나가버린 듯이 바짝 말라 있었다. 내방에 들어가 하얀 손수건을 꺼내 새끼 고양이를 감쌌다. 따뜻하게 돌 돌 말아주고 싶었지만 이미 굳어버린 사지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세 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줘야해. 물 온도 잘 맞췄지? 그 중에 조 작은 애 있지? 개는 빠는 힘이 약하니까 젖병을 살살 눌러줘.”

“이 녀석 말이야?”

나는 그 중에 좀 작은 녀석을 들어 보였다.

“야!!! 치워. 보여주지 말라고!”

이런 제기랄, 이제 이 녀석들은 온전히 내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도 언니를 미소 짓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더 컸다.

“아..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들러 붙는 거야?”

언니는 스티로폼을 자르면서 내게 물었다. 언니는 온 몸에 달라붙은 스티로폼 가루들을 떼 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었다. 보다 못한 내가 서랍에서 초와 라이터를 꺼냈다.

“칼 이리 줘봐.”

“뭘 어떻게 하게?”

“잘 봐.”

나는 칼날을 촛불에 적당히 달구었다가 스티로폼을 자르기 시작했다.

“알면 진작 도와주지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어?”

“나도 언니 하는 거 쳐다보다가 방금 생각 난거야. 내가 스티로폼 자를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야생고양이 사료 주는 것 때문에 불편한데 이런 거 까지 만들어 여기 저기 놓아두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러면

정말 추운 겨울엔 옆 동네 고양이들까지 다 올 기세야.”

“넌 고양이 얼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지?”

“이 세상 혼자 다 구하려고?”

“비약하고 과장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그래 맞아. 난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싶다. 정말 나처럼 아무 것도 안 해야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말없이 달군 칼날로 스티로폼을 썰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납작 땅에 붙어 있었다. 멀칭을 위해 벗짚과 함께 섞어주면 이 녀석들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낙엽과 벗짚은 쌓아 놓고 한 숨 돌리려고 카페 앞 벤치에 머그컵을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쓸지 않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카페 언니 역시 무심한 얼굴로 오솔길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쁜 건 항상 순간인가 몰라. 나도 아주 평생 갈 줄 알고 도도했는데 잠깐 이더라니까.”

“언니는 지금도 그렇지만 젊었을 땐 진짜 남자 꽤나 울리셨겠어요.. 콜록 콜록.”

잠깐 잔바람이 불더니 연기가 나를 덮쳤다.

“연기는 이쁜 사람한테만 간다더니.. 나한테 이제 연기 한숨도 안 오는거 봐. 예전엔 동네 개 고양이도 따르더니...”

“에이 언니 무슨 말이 그래요?..”

“한 철이니까 최대한 즐겨. 나도 젊어서 부모님 동생 시어머니 챙긴다고 아무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한 숨 돌리려고 하니 금방 이렇게 늙어 있더

라고.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왜 몸이 안좋아지셨데?”

“교통사고 후유증이세요. 근데 좀 관리를 잘 하셨어야 하는데 워낙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시라... 아주 그때 병원에서 난리도 아녜다니깐요. 오죽하면 옆에 90세 할머니가 좀 참고 가만있으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다 했죠.”

“아유... 자기 그때도 고생 많이 했겠다. 쫓쫓... 나 자기 볼 때 마다 내 생각 나서 항상 맘이 좀 그래.”

나는 열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언니에게 말했다.

“저 좀 바보 같아 보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너무 착해도 못써.”

“맞아요.. 엄마 챙기는 거... 어떻게 보면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죠. 뭐 대단히 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많이 회복되고 계시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

“언니는 좀 어때?”

“네 언니 아프다기 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니까... 애초에 별로 걱정도 안했어요. 여기 있으면서 밤에 혼자 있기 무서운데 내가 끌어 들인 거죠. 그리고 한 동안 세 식구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죠. 이래저래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언니는 애도 다 컸는데 연애 안 해요?”

“주책은 다 늙어서... 한평생 뒤통닥거리 하며 살았더니 지금이 제일 편해. 뭐 그래도 여자라는 게 나 좋다고 달려들면 어찌든지 마음이 가게 되있긴 하지만 동네 강아지도 안 쫓아오는데 누가 나 보고 쫓아오겠어? 그러니까 평생 젊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주 큰 오산이야.”

빨강게 달궜진 태양이 서쪽 바다로 풍덩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듯 휘익~ 하고 바람이 불었다.

“아이고 얘기 하다 해지는 줄 몰랐네. 우리 어서 낙엽 쓸어 모으고 오늘 일 끝내자 자기야.”

카페 언니는 부산을 떨며 갈퀴를 챙겨 노란 애들이 납작 엎드린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이리 저리 불더니 노란 애들은 발 달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무리지어 뛰기 시작했다. 단풍잎이 뿜지는 않았다. 플라타너스 잎은 굴러다니기는 했다. 하지만 은행잎들은 무리 지어 달려 다녔다.

“이것들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쓸어 담으려니까 막 흩어지네?”

마치 언니의 갈퀴질을 피하듯 이리 저리 도망 다니는 모습이 우스웠다.

“아주 연기도 날 피하더니 동네 개들도 피하고 이제 너들까지야?!!”

병원 안을 들어서자 손님 두어 명이 대기실에 앉아 있고 진료실로 보이는 곳에서 수의사와 손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프론트에 아무도 있지 않아서 어찌 해야 하나 잠깐 망설이고 있을 때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원장님 사료 하나 가져가요!”

수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후다닥 나오더니 카드를 긋고 탁자 옆에 스프레이를 눌러 손가락을 적신 뒤 검은 봉투하나를 집어 들어 사료를 담았다.

“저희 다음 주에 일주일 쉬는데 오늘 안 왔으면 강아지 굶을 뻔 했네?”

“저번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일부러 지금 온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

자기들끼리만 익숙한 분위기에 이방인처럼 서있는 우리 자매를 그때서야 발견했는지 원장이란 사람은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어떻게 오셨어요?”

“접종 맞으러....”

“아.. 지금 진료 끝나고 지금 대기하시는 분 수술 하나 끝나면 삼십분 정도 걸리니까 좀 앉아 계세요.”

하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진료실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 봤다. 진열장에 사료가 배치되어 있고 대기의자...이런 것들은 평범한 동물병원과 다를 바 없었지만 진료실과 대기실을 가르는 곳에 배치된 장식장에 가득 차 있는 장난감들이 병원과는 이질감이 들었다. 종류도 다양해서 무선조정 자동차, 탱크, 로봇 등이 빼곡했다.

“너 여기 잘 알아보고 온 거야?”

언니가 약간 낮은 소리로 물었다.

“응.. 그래도 꽤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고 수술로도 유명하다는데... 가짜 블로깅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 때 고양이 분유 먹는 법 알려준 곳이라 온 것도 있고 싸가지의 정체를 보고 싶은 점도 있었다.

옆에서 우리 말 소리를 들었는지 오지랖 넓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이야기했다.

“여기 원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도 꽤 괜찮은 점도 많아요.”

“아... 네...”

혹시 또 엿들을까봐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원장이란 사람은 부산하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듯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잠깐 허리를 의자에 기대어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전에 길고양이 때문에 전화 드린 적 있어서..”

“네 고양이 이름이요.”

“길고양이라서 아직 이름이..”

“세 마리니까 고1 고2 고3으로 적구요.. 나중에 이름 만들면 이야기 해주세요

요.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뒤에 서있던 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여자애 하나 하고 남자애 둘인데 저희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암컷 한 마리 수컷 두 마리.”

“아뇨. 여자애 하나 남자애 둘이요.”

수의사가 언니 얼굴을 잠깐 쳐다 보다 고양이 꼬리를 순식간에 올려 보더니 말을 이었다.

“수컷만 세 마리구요.”

중간에 앉아 있는 나는 내 몸이 뭔가에 끼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원장은 고양이 한 마리의 목덜미를 잡더니 살짝 끌어 당겨서 꺼내 들어 보았다. 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이야기했다.

“아. 애를 좀 살살..”

원장은 다시 언니를 쳐다보았다.

“자 보세요. 고양이는 이렇게 목덜미를 살짝 잡아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미가 애한테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들면 일단 서열 정리가 되구요. 두 번째 발버둥을 치더라도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칠 일이 없어요. 주사 맞을 때 움직인다고 꺾 누르거나 안으면 쇼크나 호흡 곤란 아주 안 좋을 때는 장기 파열도 일어 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잡으면 물릴 일도 없어요.”

나는 고개들 뒤로 들어 올려 언니를 보았다. 뭔가 못마땅한 표정은 여전했다.

“내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 줄게요.”

원장은 세 마리를 차례차례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려 보였다.

한 녀석이 몸을 비틀며 싫어했다.

“아.. 원장님 애가 싫어하잖아요. 편하다고 그래요?”

언니의 말에 이젠 내 얼굴 까지 빨개질 것 같았다.

원장은 상관없다는 듯이 다음 아이를 들어 올렸다. 두 번째 아이는 몸을 축 늘어뜨렸다.

“자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고양이는 눈을 희미하게 감더니 고개까지 한쪽으로 떨구고 온몸의 힘을 뺐다.

“아까 그 녀석은 서열이 높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잡으면 싫어하죠. 목덜미는 이 녀석들에겐 서열이니깐요. 고양이가 생후 25일정도만 되도 자기들끼리 목덜미 물기 놀이를 합니다. 여기서 서열을 정하죠. 두 번째 만진 애는 서열이 낮고 압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몸을 맞기고 또 편안해하죠.”

이제 보니 원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먼저 만진 애가 굉장히 억세서 다른 애들이 힘들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양이 세 마리 키우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몰랐어요?”

“네 자격증이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고양이 세 마리를 그것도 수컷들 키우려면 주인분이 카리스마 자격증 따고 키워야죠.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열 정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게 됩니다. 그걸 보고 다묘가정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이 원장은 내가 전화로 물어봤던 것처럼 투머치 토크인지 한참 설명을 했다. 일단 싸가지 없는 것은 확인이었지만 꽤 흥미진진하였다. 하지만 언니 얼굴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

“야! 여기는 절대 다시 오지 말자. 이래서 지방은 안 되는 거라니까 도대체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없잖아.? “

나는 아까 원장이 계산을 하며 한 말이 떠올랐다.

“보성이요? 어이구 멀리서도 오셨네.. 병원은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병원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허허허.. 보성이면 순천이 훨씬 가까우니까 그쪽에도 훌륭한 병원이 많습니다.”

서로 원하지 않으니 잘 된 거 같다.

“그래도 꽤나 자세히 설명해주던데?”

“사람이 지식이 문제니 태도가 문제지.. 너 아까 그 장난감들 봤지? 완전히 오타쿠 녀석이라니까.”

“그래 기름 값 아끼고 좋지. 가까운 데로 다니자. 그러면 됐지?”

“우리 보성은 말이지 이렇게 김장할 때도 녹차 잎을 활용한다 이거야. 녹차 잎을 가루로 넣어도 되고 우린 물로 넣어도 되고...”

카페 언니가 배추와 버무릴 양념을 준비하며 말을 했다.

“녹차 잎을 넣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녹차가 항산화 성분이 많잖아. 그래서 김치가 오래가고 맛도 깊어지고... 그리고 이 곳 김치는 남해안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아주 좋은데 녹차가 잡내를 한 번 딱 잡아주니까 좋지.”

“프로폴리스가 많으니까 김치가 오래가나 봐요.”

“예전엔 정말 김장철만 다가오면 쌓인 배추 한 무더기 보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게 사는 재미가 되더라고. 이제 식구도 얼마 없어서 나 먹을 정도로만 담그니까 힘들 것도 없고 말이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요즘엔 다들 사 먹잖아요.”

“아이고. 이 놈의 인생. 우리 식구가 1남 3녀야. 아들은 막둥이고, 내가 둘째 딸인 거지. 자기도 둘째 딸이잖아.”

“저희는 딸만 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첫째 딸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나는 그냥 부록이었다니까. 내가 새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어. 맨 날 물려받은 옷, 물려받은 신”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춘기 땐 언니 옷 한번 잘못 입고 나갔다가는 온 집안이 다 뒤집어졌는데... 어차피 물려줄 거 나이 터울도 안 나는데 같이 입으면 되지 꼭 자기가 먼저 다 입고 질리면 나 준다니까.”

“에휴~! 말도 마. 큰 언니들은 다 허당이야 허당. 허구헌 날 엄마 걱정 아빠 걱정 온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하는데 당장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상관은 상관은 어찌나 하는지.”

“제 언니는 맨 날 나더러 가족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둘째는 이기적이라고 타박이에요.”

“그러 길래 왜 둘째는 이기적이라고 할까?”

“첫째는 원래 고생하는 애고 막내는 어려서 그렇고, 결국 둘째가 눈치 봐야지 뭐. 그러다 보니 둘째가 자기 몫 챙기면 꼭 이기적이라더라.”

“어썸, 자기는 나보다 더 잘 알아?”

“제가 원래 제 몫 챙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김장 김치도 제 몫 주실 거죠?”

“아이고 자기는 뭘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만드는 건데”

“그래도 재료비는 제가 절반 낼게요.”

“괜찮아. 어차피 밭에서 다 따다가 하는 거라. 재료비 얼마 들지도 않았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 둘째 딸 동맹이 생겨서 이제 가슴이 풀리네. 풀려.”

절구통에 고인 물 위엔 얇은 살얼음이 날마다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었지만 첫눈은 아직 이었다. 은행잎도 거의 다 지고 눈이 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벤트라고는 없는 초겨울이었다. 발코니 끝 마룻장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

아 다리를 허공에 흔들며 아래를 바라다 보다 그만 실내화가 녹차 발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 나는 급히 신발을 갈아 신고 아래로 내려가 실내화를 찾기 시작했다. 녹차 나무 아래로 허리를 숙이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실내화는 꽤 아래쪽에 박혀 있어서 꺼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에이 설마 엄마 못 오게 하려고 이런 비탈 언덕길에 집 얻었을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웬일인지 쪼그려 앉아서 언니의 통화를 엿들었다.

” 그러게... 내가 항상 엄마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지. 항상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네. 엄마 고생 그렇게 한 거 내가 잘 아는데 딸로써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언니는 천천히 걸어가며 통화를 이어 나갔다. 나도 오리걸음으로 녹차 발 사이에 숨어 언니를 따라 갔다.

“그래도 엄마 김치만 하겠어? 진짜? 그럼 은미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그랬어. 맞아, 맞아. 또 난리 치겠지. 그래, 엄마가 말해 봤자니까 내가 따끔하게 말해놓을게.”

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엄마 김장 하지 말라고!!!”

“엄마!! 깜짝이야.”

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기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야! 너 거기 숨어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언니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 들고 흠을 몇 번 털어내더니 전화기에 말을 이어갔다.

“어. 엄마 별 일 아니야. 은미가 사람 놀래키잖아. 일단 끊어.”

“아. 나 내일 김장 담으러 안 간다고! 그리고 엄마 다리 아파서 김장 담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해.”

“넌 아랫집 카페 사장 언니 김장은 이틀이 걸려도 도와주더니 엄마 김장

도와주는 건 그렇게 싫어? 그리고 엄마 다리 아프시니까 가서 도와주라는 거지. 어차피 도와주러 안가도 엄마가 혼자라도 하실 거 뻔한데 너처럼 그렇게 소리나 지르고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니?”

“자꾸 언니가 엄마 김치, 엄마 김치 하니까 엄마가 저러시잖아.”

“너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하는데 엄마가 지금 산송장이니? 다 니 편하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너한테 나 간병해 달라고 한 것처럼 소문 내놨더라? 어차피 나 없으면 너 혼자 여기 살 수 없으니까 나 내려오라고 한 거잖아. 다 니 편하려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생색내지 마라.”

나는 갑자기 말문이 턱하고 막혔다.

“내가 너 엄마 때문에 응급실도 왔다 갔다 했던 거 알아. 내가 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편치 않아서 잘 모시지 못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래도 엄마 김장하시다가 또 다리 아프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려고?”

“봐봐... 니가 하는 말을 잘 봐. 엄마 다리 아픈 게 걱정이니 아니면 니가 책임질 것이 더 걱정이니? 그리고 누가 너 혼자 가래? 나도 가면 되잖아.”

“언니 어차피 가봤자 한 시간도 못 있을 거 전화로만 그렇게 사람 녹이고 가서는 맨 날 싸우고 오면 뒤통수 치는 거 다 내 몫이잖아.”

“그래 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어. 나도 엄마하고 만나면 꼭 안 좋게 끝나서 마음 아프고 내가 모자라다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야. 너는 그게 니 몫이고 나는 엄마 마음 만져주는 것이 내 몫인거 아니겠어?”

나는 한참이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나 편하자고 한다는 말 취소해.”

“그래 그래. 취소할 게 그러니까 우리 내일 같이 가서 엄마는 소파에 묶어 놓고 김장 담그자. 그럼 되겠지?”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사서 장착한 거야?”

“아니 차 사기 전에 미리 사놔다가 끼워 넣었지.”

핑크색 경차 안은 헬로키티 핸들커버와 머리 받침대로 꾸며져 있었다.

“이러구 한 참 타고 다닌 거야?”

“다시 떼기도 좀 그렇잖아. 내가 계속 타고 다닌 거면 몰라도 어차피 니가 차 가지고 내려오라고 성화고...”

오빠한테 내 차를 끌고 내려오고 자기 차를 타고 올라가라고 해서 이제 처음 내 차를 받아보게 되었다.

“내 취향을 왜 오빠가 결정해? 이게 내 취향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뭐야? 몇 년 봤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

“어차피 핑크색 차 선택한 건 너잖아.”

“아이구... 그냥 대충 사라고 한 거지. 오빠가 이게 색깔은 이래도 킬로수하고 연식이 좋다며?”

“그래서 다 떼고 탈거야? 어차피 겨울이라서 손이 시려우니까 핸들커버는 꼭 필요할 텐데.”

“그래.. 뭐 꼭 떼고 탈것까진 없지. 난 이걸 오빠 취향으로 하고 다녔을까 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 그리고 오빠는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데로 다 해? 내일 김장 담으러 가야하니까 담 주에 오랬더니.. 이제 이런 말은 하기도 지친다.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 난 오빠 가고 나서 언니랑 엄마 집 가야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내일 같이 가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드리는 것도 좋잖아.”

“인사? 무슨 인사? 결혼할라구?”

“꼭 결혼 한다고만 인사하나. 네 말대로 어머니 나 보면 기겁하실 인상이래며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기겁하시면 동네 창피하니까 미리서 얼굴 보여야

지.”

“우리 집 생각보다 피곤해. 오빠 감당 되겠어?”

“초면에 김장 도우러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아 몰라. 엄마도 오라고 하셨어.”

오빠는 엄마 드릴 거 산다며 마트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고 있었다.

“언청이도 아닌데 아직 까지 안보여 준 것도 오빠가 서운해 할 만하지 뭐.”

“그래. 니 오빠가 같이 가야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오빠가 저쪽에서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 왔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처음 방문이라 뭘 사갈지 마땅한 게 없어서.”

“뭐 샀는데?”

“응. 홍삼 셋트 샀어.”

“어차피 언니 입으로 다 가겠네?”

“응?”

“아니. 그냥 한소리야. 신경 쓰지마. 잘했어. 고마워.”

“엄마 이거 우리 오면 하라고 하니까 굳이 다 해놨어요?”

엄마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베란다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

“이렇게 해 놔야. 버무리고 오늘 안에 끝나지. 오면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지 사람 세워 놓고 뭐 하는 거니? 어여 들어와요. 반가워요.”

“아. 네 어머니 인사드릴게요. 은미 남자친구 김병석입니다.”

“내가 온다니까 오라고는 했는데 집안도 난리고 김장하는데 남자가 뭐 할 게 있을라나. 집 고칠 때도 많이 도와 줬다 들었어요.”

“아.. 네 그래도 힘쓸 일은 저한테 다 맡겨 주세요.”

“일단 앉아요. 은미야 차라도 나와라.”

“아. 아닙니다. 그냥 빨리 김장을 하죠. 방금 출발하면서 차를 마시고 와서요.”

나도 오빠가 말하는 데로 하는 게 어찌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우리는 말이 길어지면 뭔가 안 되는 집안이니까.

“엄마 그게 좋겠네. 얼른 끝내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렇까? 그럼 조금 있다 끝내고 보쌈 삶아 났으니까 김치랑 싸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

“오빠 거기 소금 좀 줘.”

“이거?”

“아이 참, 그건 설탕이지.”

“하하.. 하얀 색이라서...”

“굵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분간이 안가?”

언니는 식탁에 앉아 양념에 넣을 배를 깎으며 나를 내려다 봤다.

“재가 저렇게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걸 즐긴다니까요.”

“아니! 내가 달랬지 언제 뿌리래?”

“아.. 그런 거야?”

아니, 이 오빠는 집 고칠 땐 안 그러더니 오늘 따라 정신이 나간 것처럼 우왕좌왕이다.

“오빠 그러지 말고 저기 무 좀 썰어. 저거 썰래면 힘이 드니까 오빠가 썰어서 채칼에 올리고 쓱쓱 갈면 돼.”

“우리 은미가 좀 틱틱 거려도 맘은 어린 애니까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엄마가 썰린 배를 언니 입에 넣어주면서 말을 했다.

“아.. 네. 전 전혀 괜찮아요.”

“예전엔 남자는 부엌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 뭐래더라 요색남?”

“하하하.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서 요색남이 되려구요.”

“우리 아이가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필요할거예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자기야 이거 채칼에 갈면 어디다 두지?”

“응. 거기 양푼위에 올리고 ... 잠깐 내가 보여줄게.”

언니가 배를 오물거리다 한마디를 거들었다.

“이런 일 전혀 안 해보셨나보다.”

“네. 집안 고치는 거나. 기계 고치는 건 좀 하는데 이런 건 오늘이 처음이라서.”

“요즘엔 남자랑 여자가 딱 정해진 역할 분담은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항상 손해 보는 구조는 여전하다니까요. 그래도 보니까 은미 남자 친구분은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여서 괜찮을 거 같아요.”

“아 네 .. 전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남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남성성.. 이런 게 원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게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아직.”

“언니 그만하지? 헬로키티 장식된 핑크색 경차 타고 다니는 정도면 됐지. 더 뭐 더 바래?”

나는 채칼을 양푼위에 놓고 몇 번 쓱쓱 가는 것을 보여주고 제자리에 다시 앉았다.

“근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

“네... 어머니하고 위로 누나가 셋입니다.”

“네? 위로 누나가?”

“방금 내가 맞게 들은 건가?”

엄마와 언니가 거의 동시에 말을 했다.

오빠는 엄마를 쳐다보며 대답하다가

“네. 제가 막둥이라서.. 아! 아악!”

떨어 놓 하얀 무채 위로 피가 번졌다.

“오빠!! 이게 뭐야.. 피. 피가 나잖아!”

검지 손가락 끝이 무채 떨어 놓은 것처럼 위태롭게 덜렁 거리고 있었다. 잘린 살점을 타고 피가 빠른 속도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오빠 뭐해 꼭 잡아. 피 안 나게. 꼭!”

오빠가 뭐 하러 굳이 자기 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보여 줬는지 모르겠다.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 나 약....”

“아이고... 이를 어째.. 약 어디 있니? 약... 약!”

엄마는 언니 손가방을 뒤지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붕대! 집에 붕대 있지?”

“우리 애 약이 없다. 약이 어딴니? 빨리 빨리.”

언니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차... 차에...”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붕대를 찾기 시작했다.

“은미야!! 차에 언니 약!!”

나는 분명 엄마 방 어딘가에 붕대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잘 나오질 않았다.

“엄마 붕대 어딴냐구!”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엄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고 오빠가 손가락을 꼭 쥐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며 엄마를 말렸다.

그때 내가 다급해서 바닥에 내팽개친 배추를 오빠가 밟고 양념이 든 대야 위로 엉덩방아를 찼었다.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보쌈을 한가운데 두고 우리는 말없이 둘러앉았다.

오빠는 엄마가 준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언니는 소파 한쪽에서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물에 삶은 보쌈에 된장을 발라 배춧잎에 싸서 먹었다.

“오빠는 내일 일해야 하니까 먼저 올라가. 어차피 나는 이거 다 정리하고 내일이나 언니랑 버스타고 집으로 갈게.”

엄마가 묵은지에 보쌈을 싸면서 말했다.

“그래 그편이 낫겠네. 자네는 식사 마치고 어여 올라가쇼.”

“나 오늘 입을 옷도 칫솔도 아무 것도 안 가져 왔는데....”

무심한 듯 언니가 말했다.

“그럼 오빠가 언니 좀 데리고 집에 들렀다 올라갈래?”

“나 혼자 그 집에서 자라는 이야기니 지금?”

여전히 힘이 쭉 빠져 있지만 가시 돋는 투로 이야기 했다.

“아. 그럼 어찌라고? 오늘 밤에 이거 다 정리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나는 오빠를 쏘아보며 말을 했다.

“그냥 조용히 해. 도대체 죄송하단 말을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제가 내일 월차를 내고서라도 여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응.. 그럴 필요는 없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저도 지금 민망해서 쳐다보기도 힘드니까 일단 올라가세요.”

언니가 또 가시를 세운다.

“내가 분위기 좋을 때 말하면 오히려 생똥맞을 거 같으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난장판 된 거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

“아, 엄마 오늘 힘든 날이니까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지?”

도대체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젠 막을 힘도 없었다,

“자네 홀어머니에 누나가 셋이라고 한 거 맞지?”

잠시 정정이 흘렀다.

“오빠. 가자. 이리 나와.”

“왜 갑자기?”

“밥 먹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느 집 예의냐?”

“그냥 가라고 냅 뒀. 엄마.”

네 사람의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왔고 오빠는 식탁에 앉아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얼른 나오래두.”

나는 오빠 어깨를 뉘아채서 끌어당겼다.

“잠깐 너 왜 그래? 어머니 앞에서 이럼 안 되지.”

“아 나오래두. 빨리.”

“어.. 어머니... ‘

“그래 가게나. 오늘은 영 파이네, 파이. 다음번에 보든지...”

“그럼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만.”

“너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무례하게 할 거야?”

현관문까지 끌려 나온 오빠가 그제서야 나에게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

“나 나중에 어떻게 얼굴 들고 만나라고 이렇게 막 끌고 나와?”

“그러니까 아까 병원에서 그냥 누워 있다가 적당히 서울 올라가랬지?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꼭 밥은 먹고 간대?”

“내가 언제 밥 먹고 간댔나. 치우는 거 돕고 간다고 했지... 어쨌든 알았어. 오늘 나 때문에 다 망했네.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운전은 할 수 있겠지?”

“오른손을 다친 거라 문제없어.”

“내일 꼭 병원 다시 가보고. 아까 의사가 말한 대로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꼭 약 먹어. 오늘 밤이 제일 아플 거야. 밤에 아파서 잠 안 오면 나한테 꼭 전화하고... 늦게라도.”

“너 지금 나랑 헤어질라구 이쁘게 말하는 거지?”

“미안해 오빠. 내가 아까 오빠 타박만 안 했어도 오빠가 당황하진 않았을 텐데 다 내 탓이야. 내가 오빠한테 매번 버릇없이 군거 미안해.”

“미안해하는 거 보니 진짜 헤어질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래 불안하게?”

“배추 밟고 넘어져서 양념통에 엉덩이 찢어서 헤어졌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헤어지더라도 나중에 다른 이유로 헤어질 테니까 오늘은 걱정 마.”

“근데 나... 홀어머니에 누나 셋이면 뭐 문제 있는 거니?”

“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관 마.”

나는 오빠를 꼭 안아주고 웃어 보였다.

“오빠 울어?”

“내가 뭘 운다고 그래. 나 간다.”

나는 오빠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고 오빠도 깜박이를 켜주더니 모퉁이를 돌아 나갔다.

늦게 내린 눈이 미안하기라도 했는지 발목이 빠질 정도로 소복하게 내려쬘

다. 이곳 녹차 밭은 비탈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얀 무스 크림을 여러 줄 짜놓은 듯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산 전체를 휘감았다.

나는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며 일어나 아래 카페 주차장까지 이어진 좁은 오르막길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다. 눈이 녹거나 얼면 다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만치 아래서 카페 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원하는 굉음을 내며 쌓인 눈을 날려 보내고 있었다. 나는 좀 미안해져서 더 속도를 내서 빗자루를 쓸었고 우리는 가운데서 만났다.

“언니. 제가 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 해놓는다는 걸 깜박했지 뭐야. 이걸 어느 세월
에 빗자루로 쓸겠어.”

“너무 고마워요. 저도 첫눈 기다리기만 했지 이런 일은 예상을 못했어요.”

“어때? 참 이쁘지?”

“네. 이 모습 보고 싶었는데 첫 눈이 늦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첫눈
이라니...”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서 봤을 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가 다 다르거든.”

“맞아요. 옆에서 봤을 때도 대비가 강해서 너무 이쁘고 여기 곡선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눈 올 때가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또 습설일 때랑 건설일 때 또 틀리거든. 오늘은 습설이라 더 이
쁘네.”

“그러게요.”

“이게 매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지만 이렇게 같이 볼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주 특별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보다 둘이 있
을 때 좋은 거고.”

“그런가요?”

“자기야 여기까지 온 김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올라가. 내가 식빵도 갓 구워서 준비해 뒀어.”

우리는 갓 구운 식빵에 햄과 치즈 그리고 양파 등을 얹은 브런치를 먹기로 했다.

“에그머니나 그 총각 어찌면 좋아?”

“그러게요. 그래도 이번 주는 내려오지 말고 내가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나한테 이야기 해줘도 돼? 꽤 민만한 이야기잖아.”

오븐에서 갓 꺼낸 식빵이 고소한 김을 모락모락 천정위로 올리고 있었다.

“그러게요. 그래도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언니한테 털어 놓으면 맘이 가벼워진다고나 할까? 아니면... 말하고 나면 그 장면에서 빠져 나오는 느낌이랄까?”

“자기야 이리 와서 좀 볼래?”

나는 도마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썰기 시작하는 언니 옆으로 다가갔다.

“이 식빵이 말이지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어때 이 단면만 보이잖아. 여기 박힌 건포도만 보이고.”

“그렇겠죠?”

“우린 이렇게 단면만 보는 존재라서 이게 다 인거 같은 거지. 썰어져 나간 곳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앞으로 썰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아리송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걸 통째로 보면 다 일어날 일이었고 다 정해진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우린 애초에 할 게 없네요?”

“왜 할 게 없어?”

“이미 정해졌다면 무엇을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썰면 되는 거야. 하루하루 썰어 나가는 거지. 건포도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썰어 나가는 거야.”

“언니는 지금까지 썰어 보니 어떤 거 같아요? ‘

나는 양파를 얇게 썰면서 물어봤다.

“내 빵은 건포도가 좀 뒤쪽에 몰려 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해.”

난 양파 때문이었는지 어쩐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카페 언니가 잠깐 내 눈치를 살짝 보는 듯 하더니 서둘러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녹차 끓일 물 올려놓고 불을 안 켜어. 건포도가 뒤쪽에 몰려 있으면 뭐해 뒤쪽에 이스트가 몰렸는지 뇌에도 구멍이 많이 뚫리 나봐.”

카페 창밖으로 언니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 오는 것이 보였다.

“언니가 오나 보네. 아까 같이 먹자고 부를 걸 그랬다.”

카페 언니가 불길한 말투로 이야기 했다.

“어차피 언니는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오늘은 일찍 웬일이지?”

언니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에 든 것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이야기 했다.

“사장님 이런 게 왜 녹차 발 한 가운데서 발견이 되죠?”

언니가 내려놓은 것은 빈 락스통이었다.

“이게 락스통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했는데요?”

“우리 집 뒤쪽 고양이 보금자리 쪽에서 이게 있더라구요.”

“글쎄 락스를 써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을 텐데. 왜 거기 있었지?”

“언니 좀 천천히 진정하고 이야기해.”

웬지 카페 언니를 다그치는 듯 한 말투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언니는 의자를 하나 꺼내서 자리 앉더니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하는 거 듣고 조금은 불안했는데 이런 게 고양이 보금자리 옆에서 발견되니 너무 소름이 끼쳐요.”

“그거 하고 락스하고... 응? 설마? 누가 락스로 고양이 죽이려한다 이건가요?”

언니는 다시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팔짱을 끼고 다시 강조해 말했다.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게 발견될 이유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그렇다고 아무리... 하긴 락스통이 녹차 발한가운데서 발견될 이유는 없지. 언니 분 진정하고 내가 알아 볼게요.”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고양이 사료 줄 때부터 눈치가 이상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구요.”

“나한테 그런 불만 이야기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었는데.”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올라가자. 언니 죄송해요. 일단 올라가 볼게요.”

“이건 경찰에 신고 할 일이라구요.”

“알았어. 언니 여기가 경찰서는 아니니까 올라가서 경찰에 신고하던지 말든지 하자고.”

“고양이 사료 주니까 녹차 창고에 쥐라도 들던가요?”

갑자기 카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굳어 버렸다.

“설마.. 언니 분 지금 나 의심하는 건 아니죠.?”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 온 나는 언니를 쏘아보며 말을 했다.

“언니 진짜 창피하게 왜 그래? 어디 죽은 고양이라도 한 마리 봤어?”

“고양이가 죽으면 그땐 늦은 거지 죽은 고양이 나올 때 까지 나보고 참으라는 거니?”

나는 열불이 나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 재깼다.

“언니 그런다고 카페 사장 언니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해?”

“내가 어디 그냥 근거도 없이 그러는 사람 같아?”

“뭐 카페 언니가 락스통 들고 와서 뿌리는 거라도 본거야?”

“자 여기”

나는 언니가 내민 핸드폰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카페 언니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고양이 보금자리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사진과 뒤돌아서서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이었다. 언니가 손가락을 살짝 벌리자 사진이 확대 되었다. 분명 뭔가 하얀 통이 카페 언니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식탁위에 올려져있는 페트병과 작은 물그릇을 보여주었다.

“이게 뭔데?”

“이게 고양이 집 앞에 놓여 있었어. 이거 너도 처음 보는 거지?”

맞다. 그건 우리가 놓아 둔 스텐레스 물그릇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누가 이런 걸 놓아두었을까?”

“궁금하면 네가 가서 물어보렴. 내가 가서 물어 보면 창피하다며.”

“누구한테 물어봐?”

“카페 언니지 누구야? 그 언니가 이런 거 가져다 났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증거가 뭐가 더 있어야 돼? 니가 카페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백을 받아 오든지 아니면 내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만나든지 그건 네가 선택해.”

“하얀통은 다시 가지고 내려 갔잖아.”

“모르지 중간에 획 던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나는 종일 방구석에 박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고민을 했다는 말보다 생각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카페 언니한테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볼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볼까?’

‘카페 언니가 먼저 와서 뭐라도 나한테 물어보든지 말하던지 하면 안될까?’

‘이 상태에서 카페 언니가 먼저 올라 올 일도 만무하다.’

나는 이 눈 쌓인 녹차 밭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발코니로 나와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시리도록 가슴이 아팠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달빛에 비친 눈에 반사된 녹차밭은 대낮처럼 밝았다. 달빛이 만들어내는 음영은 낮에 보았던 눈 쌓인 녹차나무와 오솔길의 대비보다 더 강렬했다.

그때 저만치서 뾰드득 뾰드득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빛 그늘에 완전히 몸을 숨기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는 집 쪽으로 다가오다가 싶더니 더 위쪽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룻바닥 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으며 발코니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다보았다.

그 그림자는 고양이 보금자리 앞에 멈추더니 쭈그러 앉아 모습을 감추었다. 후레시를 켜 것인지 흰 눈을 얹은 녹차 나무가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그림자만 너울거릴 뿐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팍, 팍, 팍..”

무엇인가 땅을 파는 소리가 같은 것이 들렸다. 나는 궁금해서 계속 그 쪽을 쳐다보는 건지 소름이 끼쳐 얼어붙은 건지 모를 정도로 꼼짝 할 수 없었다. 소리가 멈추고 후레시 불빛도 탁 하고 꺼지자 달빛 그림자가 몸을 일으켜 녹차나무 위로 드리워졌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더니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

다. 달빛에 비친 하얀색 통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부터 다시 내린 눈은 아침이 되면서 폭설로 변해 있었다. 거실 한 켠에 높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새끼 고양이들의 밥 달라는 울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불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도대체 언니는 무엇을 하는지 고양이 울음소리에도 나오지 않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나 역시 이번만은 양보하지 않고 싶었다.

징~ 징~

휴대폰의 진동 소리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베개로 꺾 눌러 소리를 질식 시키고 싶었다. 소리가 잦아들고 한참 후에야 카드 밀장을 까보듯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오빠의 전화였다.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남부지방에 폭설이 내린다는데 괜찮은지 걱정 되서 전화했어.”

나는 일어나 창문 커튼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녹차 밭도 카페도 그리고 어젯밤 그곳... 그 어느 곳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보라가 하얗게 앞을 가리고 있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또 오빠였다.

“여보세요?”

“응. 전화했었네? 방금 일어나서.”

“시간이 아홉시가 훨씬 넘었는데 늦잠 잤네? 눈 많이 왔지?”

“응. 어제 한번 내리고 말지 알았더니 오늘은 눈보라가 심하네.”

“오늘은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네? 그 비탈길 눈으로 다 덮였을 텐데 미끄러지면 읍내까지 내동댕이 쳐지겠어.”

“배추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보단 낫겠지.”

“아놔.. 진짜 나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이불 차고 일어나는데 왜 또 그 이야기야?”

“앞으로 더 할 일도 있을 텐데 빨리 둔감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 손가락은 어때?”

“걱정 마. 창피한 게 크니까 손가락 통증은 잘 모르겠어. 그나저나 눈 다 녹을 때까지는 밖에 나가지 말고 차도 운행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자기 경차 두고 내 차 타고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응... 안 나갈 거야. 그냥 이대로 계속 눈이 내려 버렸으면 좋겠다.”

“언니 고양이들 우는 데 밥 안주고 계속 누워만 있을 거야?”

나는 오빠의 통화가 끝난 뒤 약간 정신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왔다.

“말할 사이에 네가 주면 덧나니?”

언니가 문도 열지 않고 안에서 말을 했다.

“언니가 다 저지른 일인데 왜 나더러 자꾸 하래? 이 놈의 고양이 소리 지겨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불편해져야해?”

언니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아주 지 편한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 내가 진작 알았다만 하기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하지 말고 잠자코 빠져 있어.”

언니는 사료 통에서 사료를 꺼내 고양이들 그릇에 나누어 주었다.

“넌 꼭 하기 싫어도 했다고 유세를 떨더라? 엄마도 고양이도?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니가 그렇게 네 리듬 데로 부산을 떠는 것이지 내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나도 하기 싫으면 안 할게. 근데 언니도 안 해도 될 일 벌여서 이렇게 소동 일으키지 마.”

“소동? 안 해도 될 일? 소동은 그 락스통 버린 사람이 일으킨 거지 내가 일으킨 거니? 그리고 한 생명이 얼어 죽는 것을 막는 것이 안 해도 될 일이니? 야... 너 소름 끼친다.”

“그래, 언니 숭고한 일 하는 거 좋은데 오늘부터 소름 끼치게 이기적인 나

는 좀 빼줘.”

나는 획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콧 닫았다.

“야! 너 정말 버릇없게 이럴 거야? 내가 엄마한테 니 남친 좋게 말해 주나 봐!”

“맘대로 해! 그리고 냄새 나니까 빨리 그 고양이 똥이나 치워!”

“너 정말 후회 안하지? “

“왜 찼려? 똥이나 치워 보시라고!!”

콧 소리가 나는 것이 언니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꾹꾹 싸매고 밖을 나가보기로 결정했다. 눈발은 조금 잦아들었고 뭉텅 뭉텅 구름 사이로 해가 들락거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물기가 많은 눈은 뽀드득 소리를 내며 들쭉날쭉 밟혔고 중심잡기가 힘들었던 나는 조심스럽게 한발씩 눌러 나갔다. 스티로폼 박스가 반쯤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앞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했는지 깊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웬지 다급해져서 얼른 스티로폼 박스 안을 쳐다보았다.

“엄마!”

그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나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넘어졌다. 고양이가 제법 쌓인 눈을 높게 폴짝 거리며 저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두꺼운 외투에 둔해진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 스티로폼 앞으로 다시 다가갔다.

스티로폼 앞에 반쯤 쌓인 눈을 걷어 내자 사료 통에 반쯤 먹은 사료가 보였고 그 앞쪽에는 물그릇이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 아마도 락스가 섞인 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 위에 놓인 돌을 치우고 스티로폼 박스를 들어 올려 옆으로 치워 놓았다.

고개를 숙여 물그릇에 냄새를 맡아 보았다. 알싸한 찬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락스 냄새가 물에 희석되면 이런 느낌인지 감이 오질 않았다. 일단 그릇을 꺼내 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그릇은 바닥이 얼었는지 어쩐 일인지 잘 꺼내지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물그릇은 흙바닥에 깊게 파여진 홈 안에 들어가 있었다. 물그릇은 비닐에 쌓여 다시 작은 물그릇을 품고 있었다. 바깥쪽 물은 살얼음이 끼어 얼어붙기 직전이었지만 가운데 작은 물그릇은 아직 얼지 않았다. 이 알 수 없는 설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괴한 느낌까지 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을 찰칵하고 찍었다. 그리고 현장 보존을 하려는 것처럼 스티로폼 박스를 다시 올려놓고 돌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눈을 한 뭉텅이 집어서 앞을 막아 놓고 뒷걸음쳐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 이것 좀 봐볼래?”

나는 언니 방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면서 말을 했다.

“언니 자? 이거 좀 나와서 봐.”

“아, 뭔데?”

언니는 비교적 쉽사리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언니에게 아까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뭔데? 고양이 집에서 찍은 거야?”

“응. 아까 내가 찍어 온 건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음... 사실 나도 이거 봤어. “

“이게 어제 언니가 보여준 그 그릇이 맞지?”

“응 맞아.”

“왜 이렇게 해 났을까?”

“원래 변태 사이코들이 그들의 의식을 치르거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소름끼쳐 하는 거고.”

“그래도 카페 언니를 의심하는 건 좀 지나친 거 같아.”

“난 카페 사장 의심한 건 아니야. 자기가 괜히 그런 거지.”

“그럼 누가 이런 걸 했을까?”

나는 어젯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을 다시 더듬어 보고 있었지만 굳이 어제 밤일은 언니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글쎄? 여기 일하는 외노자들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도 내가 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고양이를 해할 것 같았으면 몰래 그랬을 텐데 왜 락스통을 그곳에 그대로 놓고 왔을까?”

언니는 멍칫하더니 한참 생각에 빠졌다.

나는 언니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물었다.

“언니 그 락스통 어디에서 발견한 거야? 정확히?”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 고양이 집 옆에 있었다고.”

언니가 괜한 역정을 냈다.

어제 눈이 온 뒤 녹차나무 사이를 거닐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잘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내가 어제 고양이 집 앞 왔다 갔다 했을 땐 없던데?”

“그럼 내가 뭐 어디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주어다가 억지라도 쓴다는 말이 니?”

거실에는 우리 자매 둘이서 눈알 굴리는 소리만 들렸다.

“언니 내 눈 똑바로 봐. 그 락스통 어디서 난거야?”

“아 왜그래?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그 락스통을 거기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아마도 락스통을 거기에 전시해서 겁을 먹게 하려는 의도였나보지.”

“그런데 그 물그릇은 또 뭘까?”

“몰라, 내가 범죄자 녀석 심리까지 다 알아야해?”

“혹시 락스통 전시해서 겁먹게 하려는 건 언니 의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플라스틱을 모아 놓은 비닐이 있는 뒷 곁으로 뛰어 갔다. 어제 언니가 버려 놓은 락스통이 아직 있었다.

“뭐 하러 그걸 또 들고 들어와?”

나는 그 락스통을 탁자위에 탁 올려놓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 아직 남은 락스통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빈 락스통이 올려져 있는 탁자에 탁하고 나란히 올려놓았다.

나는 유심히 두 락스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이즈는 같았지만 하나도 같은 게 없었다. 물론 라벨 색깔 같은 것은 비슷했지만 제조사도 이름도 같지 않았다.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언니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참을 서 있다가 내 옆에 붙어서 락스통을 바라보더니 다시 허리를 세우고는 긴 한숨을 뱉은 뒤 나에게 말했다.

“흠~~ 너 아주 설룩흠즈 나셨구나?”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딸깍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기온은 빨리 올라 녹차 밭에 쌓인 눈이 누더기처럼 변해갈 때 쯤 나는 아직도 방안 이불속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아침부터 아무 것도 먹지 않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와 버너와 냄비 그리고 라면 한포를 챙겼다. 언니 문에 살짝 귀를 대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방을 둘러보니 언니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아예 밖에 나와 보지 않았나 보다. 배도 많이 고프 텐데 아직까지 나오질 않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평소 때면 자기를 의심한 나를 가만 두지 않

을 텐데...

나는 내방으로 돌아와 버너에 불을 켜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징~ 징~

핸드폰 액정이 밝아지면서 카페 언니라는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언니? 눈이 많이 왔죠?”

“응 그래. 내가 아까 연락할까 그랬는데 눈도 많이 오고해서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있기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했어.”

“어제 일이라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여자 둘이서 사는 데 얼마나 무서울까.”

난 카페 언니의 말에 약간의 소름이 돋았다.

“그렇지 않아도 좀 말씀드릴게 있기도 했어요.”

“그래 뭔데?”

나는 잠시 멍칫 했다.

“언니가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언니가 먼저 전화하셨잖아요.”

“응. 그래 내가 먼저 전화했지? 내가 어제 일이 너무 맘에 걸려서 어제 우리 직원 숙소에서 이 이야기를 좀 했어.”

“그래서요?”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누군데요?”

“응.. 몽골에서 온 처녀인데. 자기가 거기 고양이 집에 왔다 갔다 했나봐.”

나는 귀가 쫑긋하게 올라갔다.

“설마 그 사람이 그랬데요?”

“그랬겠어? 근데 이 처녀가 이번에 한국 온지 얼마 안 된데다 다른 몽골인

들보다 한국말이 너무 서툴러. 여기 다른 몽골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농한기가 돼서 지금 몽골로 돌아갔다가 내년 이른 봄에 다시 오거든.”

“근데 물그릇을 이상하게 해 놔던데요...”

“그건 모르겠고 나도 이런 일 때문에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기가 좀 힘들어. 어쨌든 그 처녀가 순순히 자기가 고양이 집에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한 거니까 내가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냅두라고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 해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한테 좀 잘 좀 이야기해줘. 더 이상 고양이 가지고 무슨 일 만나게 내가 단도리 쳐놔었으니까. 이번만 어떻게 눈감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알았어요. 언니. 제가 우리 언니한테도 말해 볼게요. 저도 굳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진 게 언니한테도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여기서 더 파헤쳐 봤자 좋은 건 없을 것 같아. 자기 언니한테도 별로 좋진 않고...”

“네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사이 라면이 불었는지 입맛이 떨어졌는지 라면 먹을 생각이 싹 사라져 있었다.

나는 몇 가닥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언니 방을 향했다.

“언니 뭐해? 들어가도 돼?”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보았다. 잠겨 있었다.

“언니 고양이 집에 물 놓고 간사람 찾았대.”

언니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앞으로는 고양이 집 근처엔 얼씬도 안 한다고 말했대.”

언니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다시 내방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 전에 싸가지 없는 원장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원장님, 저 저번에 보성에서 접종하러 간 고양이 주인인데요.”

“아.. 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혹시 사진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싸가지 원장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물 안 얼게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거실에 홀로 앉아 간단한 빵으로 허기를 달라고 있을 때 드디어 언니의 방문이 열렸다.

“언니 배 안고파?”

언니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먹던 빵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멍하게 티비 뉴스를 바라보았다.

“그제 새벽부터 몰아닥친 남부지방의 강추위로 수도관이 파열 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차 풀리며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언니 여기 일하는 직원이 고양이 집 몇 번 왔다갔다 했었나봐.”

“그래...”

“카페 언니가 아주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다행이네...”

“근데 그 락스통은 어떻게 된 걸까?”

“나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어차피 이젠 안 그러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쓰레기를 모아 뒷걸로 가서 버렸다.

그때 잘린 플라스틱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플라스틱 조각 군데군데에 익

숙한 파란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고양이는 더 이상 우리 집 뒤쪽에 스티로폼 박스를 찾지 않았다. 내가 놀래켜서 도망가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고양이의 흔적 따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할 즈음. 직원 숙소 뒤쪽에서 한 아가씨가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아가씨가 사라지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숙소 뒤에 새로 만들어진 고양이 집을 들여다보았다. 물그릇이 놓여 있었다. 낮설지 않은 물그릇이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마도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그 몽골 아가씨인 듯 했다. 아가씨는 나를 보며 방긋 웃어 보였다. 발그레한 두 뺨이 눈을 가리는 듯한 미소였다. 나도 순간 웃어 보였지만 추워서 그랬는지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 부끄러워 급히 자리를 떴다.

녹차 발 한가운데 산비탈은 예상보다 무척 추웠다. 바닷바람이 불어 산비탈을 타고 올라올 때면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오돌오돌 떨어야 했다. 기름보일러가 감당이 안 되어 거실에 작은 화목 난로를 두었지만 장작을 주차장에서 집까지 올리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차라리 눈 올 때가 그나마 덜 추웠던 것 같아.”

담요를 둘러쓰고 머그컵으로 손을 녹이던 언니가 말했다. 거실에 화목 난로가 거의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 두 자매의 대화도 점점 횡수가 잦아들고 있었다.

아래서 가지고 온 장작을 난로 옆에 정리하던 나는 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갔다 올 건데 언니는 엄마 집에 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그럼 내일 언니 필요한 짐 싸둬.”

“새끼 고양이들은 어찌지?”

“내가 카페 언니한테 부탁해 볼게.”

“그래 다행이다. 일요일에 내려 올꺼지?”

“글세, 올라간 김에 좀 있으려고.”

“언니도 이 추위 좀 누그러질 때까지 엄마 집에 좀 있어.”

언니는 대답 없이 스러져 가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쩐지 불평 없는 언니가 의아하게 느껴졌지만 대답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언니 나 먼저 자러 간다.”

“오빠 뭐 트라우마라도 생긴거야?”

오빠는 쌓이지도 않을 가는 눈발이 날리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응 ? 뭐라고?”

“아니야.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곳에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몇 달 전만해도 이런 곳에 살았었다는 이야기이지?”

“나 별명 생겼어.”

오빠의 동문서답에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별명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여자 생겼어? 왜 아까부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어? 여기 끝나고 빨리 가봐야 해?”

“나더러 프로 모름러래.”

“프로 모름러?”

오빠는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근데 엄마랑 언니는 잘 지내실까? 어떻게 두 분만 남겨두고 며칠이나 떠나 있을 생각을 다 했어?”

“오빠 난 있지. 내 인생의 제일 큰 과제가 뭔지 알아?”

“뭐 내가 제일 골칫거리니?”

“뭐 범주 안에 들긴 하지.. 난 내 인생의 제일 큰 과제가 내가 아는 사람들
이랑 굿바이 하는 거야.”

“또 헤어지자는 소리 좀 뜸하더니 지겹지도 않니?”

“난 엄마하고도 굿바이 하고 싶고 언니하고도 굿바이 하고 싶고 물론 자기
하고도 굿바이 하고 싶어.”

“그럼 머리 깎고 비구니를 하던지.”

“아니. 다들 잘 사는 모습 확인하고 보내주고 싶어. 좋은 안녕. 굿바이. 인
연이 없는 상태가 되면 나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세상 짐 다 짊어졌니?”

“아니. 언니가 한 말이 맞는 거 같아. 난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생색낸다는
거... 나 정말 그런 거 같아. 난 원래 지독히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굿바이
하고 싶어서 억지로 해.”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아니 오빠 나한테 잘 해줬지. 난 받을 지도 모르는 애니까 그게 고맙다고
느끼지도 않았나봐. 항상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할
것으로만 생각했어.”

오빠는 다시 한동안 멍해졌다.

“오빠 뭘 생각해? 아참 그 프로 모름러가 뭐야?”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오빠는 나를 태우고 철물점으로 보이는 어느 가게 앞에 멈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봉투에 무언가를 넣어서 뒷자리에 던져 놓더니 운전석에 앉았다.

“뭐 밧줄하고 톱이라도 샀어?”

오빠는 말이 없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산 전망대였다. 오빠는 검은 봉

투를 들고 앞장섰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다. 사랑의 열쇠들이 주렁 주렁 달려 있는 곳에 도착한 오빠는 나를 마주 보았다.

“너 여기 기억하지? 근데 오늘이 너랑 나랑 헤어지는 날이야.”

그러더니 별 주저도 없이 수없이 많이 매달린 자물통 중에 우리 이름이 적혀진 자물통을 찾았다.

“아주 주말 마다 와서 자물통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간 거야 뭐야?”

“그래 주말마다 여기 와서 우리 자물통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갔어.”

진짜 그랬을 거 같았다. 오빠는 검은 봉투에서 절단기를 꺼냈다

“너 그때 나랑 여기서 자물통 채울 때 기억나니?”

나는 그때 유치하게 뭘 이런 것을 하느냐고 타박을 했었다. 언젠가 내가 와서 자물통 풀어 내던지겠다는 말까지 오빠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 너 네 집 갔다 온 뒤로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니? 시누이 셋에 홀어머니한테 딸 줄 부모가 어디 있네.”

나는 그제서야 프로 모름러가 뭔지 알게 되었다.

“프로 모름러가 그런 의미였어?”

“오늘 너 이야기 들어보니 나까지 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겠어.”

난 내가 오늘 너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때는 늦은 것 같았다. 사실 나도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빠가 들고 있는 절단기를 뺐었다. 절단기를 땅바닥에 툭 던져 놓고 내 지갑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나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내 가방에 다시 넣었다.

“꼭 싹뚝 자를 필요 있어?”

“너 진짜 언제라도 여기 와서 자물쇠 풀고 던져 버릴 생각이었네?”

“내가 이렇게 열쇠 안 던지고 보관한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아?”

나는 오빠 얼굴을 보며 애써 웃었다. 프로 모름러 두 명은 남산을 말없이 내

려왔다.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는 말없이 차에 앉았다. 전화벨이 울리고 차량 인포시스템에 “엄마” 라는 글씨가 올라 왔다. 보통 때 같으면 스피커폰을 해제 할 텐데 오빠는 어떤 일로 스피커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 여자 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니?”

“네. 왜요?”

“저녁은 밖에서 먹지 말고 꼭 데려와라.”

“아 싫어요.”

“왜? 이럴 때 한번 봐야지.”

“아무튼 혼자 드시고 저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냥 들어와. 이미 밥상 차려 놨다. 그리고 너 빨래 놔두래도 왜 또 가지고 나갔나? 내가 몇 번 말해. 세탁기에 빨지 말라고.”

“엄마 나 엄마 말 이제 죽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리 알아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자라면 깨고 먹으라면 굶을 테니까 그리 아세요.”

오빠는 전화를 뚝 끊어 버렸다.

“오빠 엄마한테 왜 그래?”

“내 별명 하나가 더 있는데 소문난 효자야.”

우리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그 별명 없어질 때까지 우리 못 보는 거야.”

오빠는 나를 지하철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고 뒤도 안돌아 보고 사라졌다.

“응. 왔어?”

엄마가 다리를 절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어째 잘 계셨어요?”

“응 뭐 그렇지.”

엄마는 주방으로 향했고 언니는 방문을 열고 나를 뺨꼼히 내다보더니 이내 캐리어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내려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것 좀 마셔라.”

엄마 손에는 홍삼 엑기스가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나는 언니의 눈치를 살피며 유리잔을 들이켰다.

“온 김에 여기서 저녁 먹고 갈 거야. 집에 가봐야 뭐 없어.”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언니 그럴 거지?”

엄마는 벌써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분주해져 있었다.

“어째 니 남자 친구는 뭐라드냐?”

“응. 헤어졌어.”

엄마는 무를 썰다가 멈칫 하며 물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싹뚝 잘라하니?”

“나도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줘서 헤어지자고 말하러 간 건야.”

“무슨 말?”

“홀어미니 밑에 누나 셋.”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무를 써걱 써걱 썰었다.

“그래 애시 당초 안 될거 같으면 시작을 말어.”

언니가 다가 와서 손가락을 준비하며 말했다.

“응. 그러려구. 나같이 이기적인 애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감당해도 얼마나 생색내면서 남편 들들 볶겠냐구.”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이더만...”

엄마가 뭔지 모를 아쉬움이라도 있는지 썰린 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소파로 걸어가서 덜썩 주저앉았다.

“나 오늘 헤어지고 온 사람이니까 속도 허하거든 이럴 때 일수록 잘 먹어

야 겠으니까 정성껏 한 번 차려봐.”

언니와 엄마는 뒤를 돌아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니 별 말없이 또닥거리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 새끼 고양이들 3차 접종일이라고 문자 메시지 왔네?”

핸드폰을 보며 내가 언니에게 알려 줬다. 언니는 쏘그려 앉아서 새끼 고양이들을 보고 말을 했다.

“요 녀석이 제일 사람 힘들게 한다니까. 아앗! 만지려고만 해도 핏귀고 이빨로 물어.”

언니는 손을 요리조리 피하더니 목덜미를 덩싹 잡아 그 녀석을 끌어 올렸다. 고양이는 몸을 세차게 비틀었다.

“이녀석 가만히!”

언니는 쉬익~! 소리를 내며 고양이를 놔주지 않았다. 고양이가 지쳤는지 어쩔는지 몸을 늘어뜨렸다.

“더 크기 전에 빨리 분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다 키울 순 없을 거 같아. 언니는 어떤 애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암전한 애를 보내야 잘 키울 것 같아. 이 녀석은 사나워서 고양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키우면 파양 될 거야.”

나는 언니 옆에 앉아 쏘그려 앉아 고양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는 언니는 고양이를 잘 알아?”

“뭐 조금은... 오늘은 그 싸가지 없는 수의사한테 가자. 좀 멀더라도.”

“그럼 내가 점심 먹고 빨리 서둘자. 내가 된장국 끓일 동안 언니가 아래 창고에서 장작 좀 싣고 와.”

“내가 이제 그런 것 까지 해야 돼?”

“그럼 언니가 된장국 끓일 수 있겠어? 그리고 광주 가면 병원만 들렀다 올 거야? 어차피 간 김에 여기저기 들릴 거잖아. 돌아오면 어두워져. 아니면 오

늘도 좀 춤게 자던지.”

“으이휴. 정말로. 내가 된장국 끓이는 걸 배우든지 해야지.”

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다.

“이젠 2월만 되도 봄이 와버린 것 같다니까. 잘해봐야 한 추위 정도 하고 곧 매화 피겠지?”

카페 언니는 간만에 문을 활짝 열어 재끼고 환기를 시키며 말했다.

“이제 곧 전정 작업도 해야하고 곧 바빠지겠어요.”

“자기야 내가 요즘 아침에 아주 좋은 취미가 생겼는데 한 번 같이 할래?”

“뭔데요?”

“내가 말이지 몽골 전통 댄스를 배우잖아.”

“아마 그 몽골 아가씨한테 배우시는 건가요?”

“응. 아침에 한판 추고 나면 몸에서 열도 확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 나도 며칠 전 발코니에 나와서 카페 언니와 몽골 아가씨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언니 요즘 그 몽골 아가씨 때문에 심심하진 않으신가 봐요.”

“응, 아가씨가 얼마나 손이 아무진지 아주 진국이라니까. 한국말도 금방 금방 늘더라고 그리고 저 고양이 알지? 원래 사람 절대 안 따르는 애였잖아. 지금은 근데 아주 졸졸 따라다니고 내 손도 거부를 안 해.”

난 어쩐지 똥한 모습으로 언니를 쳐다보았다.

“아이고... 자기 잠깐 서울 갔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허했던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나 무척 외로웠어. 자기가 내 맘에 남바 완 남바 완!”

“에휴~ 안되겠다 몽골 아가씨 시집살이 좀 시켜야지.”

“어? 호호호. 자기 좀 웃겨.”

“언제 저도 좀 소개 시켜 주세요. 저번에 그냥 살짝 인사만 한 사이라.”

“그래 이제 날도 좀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아침에 내려와서 같이 몽골 춤 배우자. 응? 어때?”

“봐서요.”

“근데 요즘 자기 어떻게 했길래 언니가 장작도 가지러 내려오고 좀 변했던 데?”

나는 주머니에게 은박지에 알약을 까서 카페 언니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우울증 약이요.”

“남자 친구랑 당분간 좀 떨어져 있겠다고 하더니 자기 많이 안 좋아? 그래도 왜 우울증 약을 왜 나한테?”

나는 알약을 카페 언니 입 쪽으로 쪽 내밀었다.

“아이구... 나 우울증약 필요 없어. 이런 약 나눠 먹는 거 아니지.”

“그냥 드셔 보세요. “

“아이구. 아이구.. 먹어도 되나?”

억지로 삼킨 알약에 카페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에~~ 이게 뭐야 아이 셔! 요즘엔 우울증 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도 언니 앞에서 이거 먹을 때 침이 나와 참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뭐야? 자기 우울증약 먹는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질 판인데 이 기회에 생색을 좀 내야죠.”

발코니에 쭈그러 앉아 칫솔질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걸터앉아 있는 것도 어쩐지 용기가 있어야 했는데 이젠 무감각 해졌는지 비탈길 아래로 쏟아져 내릴듯 한 이 기분도 즐기게 되었다. 어쩐지 불량스러워 보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아직 화장실로 들어가기 싫은 건지 나는 치약을 발코니 아래로 뱉어냈다. 그때 저만치서 카페 언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몽골 아가씨도 나오더니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 둘은 서로를 마주보고는 그 몽골 춤을 추기 시작했다. 카페 언니가 나를 뒤돌아보며 내려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칫솔질 하는 시늉을 하다가 일어서서 그들의 춤사위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은미야?”

언니가 나를 뒤에서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무표정하게 발코니 문을 쾅하고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은미야? 괜찮아? 힘들면 혼자 건디지 말고 말해.”

나는 화장실에서 물을 싹 하고 틀어 놓고 칫솔에서 치약을 씻어 낸 뒤 헹바닥을 쓱쓱 닦기 시작했다.

“옥.. 우옥!”

너무 세게 닦았는지 토가 쏠렸다.

“너... 토해? 은미 너...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나는 웃음을 참으려 더 인상을 쓰면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재끼고 내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너 진짜 아니지? 내가 이 자식을 잡아 족쳐야겠어. 은미야 문 열어봐.”

“아 나 혼자 있게 좀 놔둬!”

난 되돌릴 수 없는 장난을 쳐버린 것 같았다.

언니는 한참이나 내 방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얼른 나와서 언니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대고 엿듣기 시작했다.

“엄마 큰 일이 났어 큰 일이.”

“아 몰라. 뭐라고 해야 할지... 은미 요즘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보니 발코니에서 떨어져 죽을 것처럼 앉아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춰 대질 않나... 나 무서워 죽겠어.”

“엄마 그런 말 마! 내가 요즘 재 비워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엄마 놀래지 말고 들어. 은미가 막 헛구역질을 해.”

“아니야 내가 막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렸다니까.”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나도 지금 심장이 벌렁 거려서 죽겠어. 그러니까 왜 엄마 김장 담을 때 사람을 그렇게 몰아 세워.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 베고 넘어지고 정신없을 사람을..”

“아이구...개 완전 진국이야. 내가 오래 봐왔잖아.. 우리가 그냥 홀어머니 누나 셋 하나로 너무 몰아 세웠다니까.”

“아 몰라... 나도.. 엄마가 잘 이야기해.. 나 지금 손이 떨려 죽겠어.. 약 먹어야겠으니까 끊어.”

나는 후다닥하고 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겼다.

엄마가 녹차 받까지 오겠다는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결국 언니와 길을 나섰다.

“너 진짜 운전 괜찮겠어? 그냥 우리 터미널에서 버스타고 가자.”

언니는 불안한 듯 손톱을 뜯으며 말을 했다.

“아이. 자꾸 호들갑 떨지마. 불안하면 약을 미리 먹던지.”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뭘 뭐라고 해. 있는 데로 이야기 하지.”

“너 어찌려고 그랬어.”

“뭘?”

“너 나랑 말 맞출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그럼 니가 알아서 해. 나한테 나중

에 편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지 말고.”

“아이 정신 사나워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자던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엄마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같은 말만 10분째 계속 중이시다.

“아. 사람을 불렀으면 이야기를 해. 엄마.”

언니가 나를 매섭게 쏘아보다 핸드백에서 금박지에 쓴 무엇인가를 엄마 입에 넣었다.

“엄마. 마음 단단히 잡숴고.. 자 심호흡... 후~~ 하~~~”

엄마는 목구멍에서 무언가 단단한 걸 삼키시는지 숨을 한번 깊에 들이키더니 나에게 말을 했다.

“누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냐? 아니... 그것 보다 헤어진 게 진짜 맞냐?”

“아 지금 그게 중요해? 깜짝 놀라서 기겁할 때는 언제고 왜 버스 떠나니까 다들 이래?”

“그래서 이 애미가 뭐 말이라도 잘못해서 니들이 헤어졌다. 이거니?”

“누가 그런댔어? 내가 세상물정 몰랐던 거지.”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쩔꺼냐? 응?”

“뭘 어째?”

“아이고 말하기도 망측하지. 그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앞뒤 안 가렸으니 니가 그럴 만도 하다. 너 자꾸 모른 척 하지 말고. 꼭 애미 입으로 이야기 해야겠니?”

나는 언니를 쏘아 보았다.

“언니 엄마한테 무슨 말했길래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길래 내가 아까 차안에서 미리... 으휴...”

언니는 눈을 치켜뜨고 이빨을 짹 물어 보였다. 나는 다시 엄마를 보며 이야기 했다.

“엄마,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이제 미련 두지마. 나도 홀어머니에 누나 셋은 감당 못해. 딱 여기까지 결론 났지?”

엄마가 폭발했다.

“지금 홀어머니에 누나 셋이 문제야? 그 배안에 애는 어쩔 건데?”

난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언니의 눈알 굴리는 소리만 들려 왔다.

“그럼 혹시 내가 애 갖었으면 그 애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되도 괜찮은 거야?”

“홀어머니에 누나 셋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누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경거망동을 해? 아니면 애시 당초 시작을 말았어야지.”

“아 몰라. 오빠 완전 호구라서 매력 없어. 맨 날 퍼주는 남자가 뭐가 좋아. 난 나쁜 남자가 좋아.”

언니가 거들었다.

“니가 완전 돌았구나? 너 그렇게 잘 하는 남자가 니 인생에 두 번 있을 거 같아?

“그래. 서서방은 뭐래드냐? 아니 알고는 있는 거냐?”

“뭐 어떤 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서서방한테는 말해야 할꺼 아니야. 아무리 헤어졌더라도.”

“아니 누가 서서방이에요? 갑자기 왜 서방이냐구요..”

나는 이 기세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올라가 확 임신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니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 팔자야.”

언니가 얼른 엄마 곁에 다가가 앉아 손을 잡고 부축을 하였다.

“엄마 진정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괜시리 저러는 거지.”

“그럼 나 오빠랑 결혼해도 된다 이거지?”

엄마가 언니 손을 풀더니 나에게 다가와 두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래 그래야지. 엄마 입이 방정이지. 애미가 잘못 했다. 지금이라도 어여 전화를 해.. 아니지 아니지... 당장 올라가라.”

“엄마 진짜 오빠 괜찮겠어?”

“내가 니 언니한테 다 들었다. 첫 인사에 처가 와서 김장 담는 사위면 똥지 뭘 바라겠니. 그 날 우세 산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구나. 홀어미니에 누나 셋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지. 암..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있어”

“그래 뭔데?”

“지금 내 뱃속에 애 있다고 해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겠니? 다 사람이 중요한....”

엄마는 터져 나올 듯한 웃음을 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너 뭐니?”

엄마는 언니를 돌아다 보았다.

“아! 너 혹시?”

“아. 내가 언제 나 임신했다고 다들 호들갑이야. 진짜.”

“너 네 이 년을..”

엄마는 갑자기 다리를 찢뚝이시며 빗자루를 찾으셨다.

“너 진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언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찾아서 엄마 손에 쥐어 줬다.

“애미를 놀리고 이 망측한 것.”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튀었다. 그리고 문을 꽁 닫고 잠금장치를 눌렀다.

“내가 언제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그래? 나도 지금 황당하다고!! 언니가 생각하는 게 꼭 저러니 나도 그런지 알고 그런 거지!!”

“게 문 열지 못해?”

“야! 너 거기서 내 이야기가 왜 나와!”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했던가. 나는 화장실을 점거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야.. 나와.. 나 화장실 마렵다고!”

“나가도 혼 안내겠다고 할 때까지 못나가.”

“아이 참. 엄마 재 어떻게 좀 해봐.”

한참동안 엄마가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얼른 나와. 혼낼 힘도 다 빠졌으니까.”

나는 빼꼼히 문을 열어 보았다.

언니가 나를 획 낚아채서 거실로 끌어냈다. 그리고 진짜로 급했는지 화장실로 돌진하고 문을 쿵 닫았다.

“엄마 됐지? 임신 한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 누나 셋에 시집 갈 일도 없어졌으니 다 해결됐잖아.”

“근데 다시 만날 것도 아니면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쳐?”

“내가 언제 거짓말 했다고 그래? 언니가 나 찻술질 하면서 토 쏠린 거 보고 혼자 호들갑 떠 거지.”

언니가 한 숨을 푹 쉬더니 손을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게 거짓말 아니고 뭐야. 진작에 오해 한 거라고 했으면 이 사단이 안났지.?”

“그럼 생처녀가 언니 엄마 불러 모아서 나 임신 안했어요. 라고 광고해?”

“근데 너 진짜 이 애미 이야기 듣고 헤어진 거니? 홀어머니 누나 셋?

“글세. 아까 엄마 말처럼 내가 너무 설불렀을까? 근데 그것 때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긴 해?”

“원데?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어? 사람은 참 진국 같던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오빠 별명이 소문난 불효자래.”

“아니 그게 뭘 소리냐?”

엄마가 나와 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뭐 부모 형제 돈이라도 끌어 썼다니?”

“아니 아주 엄마 누나들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일어나라고 하면 자고 자라고 하면 일어나고...”

엄마가 눈을 껌벅 껌벅였다.

언니가 눈을 깜박이다가 멍하니 앞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 대단하다... 하하하하.”

“아 뭘 일인데? 어이 큰 딸 이게 뭘 소리냐구”

봄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축축이 내린 날 짙은 먹물로 그려 낸 것 같은 매화 가지에 하얀 꽃이 피었다. 조그만 틈만 주어도 피어내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그 귀엽고 작은 꽃망울은 할아버지 굵은 손가락 마디 같은 딱딱한 가지를 뚫고 나왔다.

“언니... 팔을 이렇게 ... 이렇게...”

몽골 아가씨는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카페 언니가 입김을 뿜어 내며 카페에서 나오더니 한참을 웃었다.

“아이고... 자기는 정말 장작이야 장작.. 우리 몽골 아가씨 봐.. 완전 물이잖아 물! 정말 자연스러워... 증말 보기 좋아.”

“아 언니 자꾸 놀리면 나 그만 둘 거예요!”

“언니 잘 하고 있어요. 잘 해요.”

카페 언니가 몽골 아가씨 등을 탁 치며 이야기 했다.

“번호 할라고 하지마 장작은 장작이지.. 우리 한판 땡겨 볼까?”

언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더니 몽골 아가씨와 한판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찡그린 얼굴로 한쪽으로 비켜나 쭈그러 앉았다. 몽골 아가씨가 나에게
자꾸 손짓을 했고 언니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정말이지 내가 내일부터 나오나 봐.”

몽골아가씨가 춤사위 중간에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손을 위 아래로 흔들
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추는 것 같았다.

“어쭈? 좀 추는데? 다리는 누가 알려줬다고 들어다 났다 그러는 거야? 아
주 자동이야 자동.. 호호호호.”

“올해는 꽃들도 좀 많이 심어야겠어.”

오일장이 열리자 이것저것 봄에 심을 만한 종자를 고르는 카페 언니 손이
분주했다.

“자기는 작년 여름부터 있었지? 내가 밭떼기 좀 떼 줄 테니까. 심어 봐.”

“쉬운 게 상추니까 상추 한번 심어 볼까요?”

내가 상추 종자에 손을 갖다 대자 카페 언니가 막았다.

“상추 종자는 사지마 집에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해. 상추 씨 한 두
개면 자기 언니랑 두 식구 먹고도 남을걸.”

“그럼 전 화분 사서 발코니에 좀 놓아 뒀 볼까요?”

“글세.. 난 그 집 발코니 난간 없이 그 상태가 좋던데... 그냥 집주위에 꽃을
심지 그래? 땅이 지천인데 굳이 좁은 화분에 뿌리 내리게 할 이유 없잖아.”

“그쵸? 내 청춘도 아직 좁은 곳에 심어 두기엔 아깝단 말이죠.”

카페 언니는 쭈그러 앉은 채로 나를 뒤돌아보았다.

“자기 요즘 글 쓴다더니 무슨 아전인수 기술만 늘었어?”

“뭐가요?”

“나도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생 화분에만 갇혀 있지 말고 땅으로 나가서

비도 직접 맛해보고 흙탕물도 튀어보고 그러란 말이었던 말이지.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애들이 동영상에서 다 봤는데 뭐하러 보러가냐며 버스에서 안내린데. 자기도 그러지 마. 알았지? 맛을 알아? 맛을?”

나는 얼굴이 붉어 졌다.

“아이 내 정신 좀 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농협 마트만 한 번 더 들렀다가자.”

나는 카페 언니가 나올 때 까지 차안에 앉아 있었다. 말은 편 철물점을 멍하니 쳐다봤다. 온갖 기구와 연장들이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는 가운데 낫익은 절단기가 눈에 들어 왔다. 나는 잠시 시선을 거두고 선바이저에 붙어 있는 거울을 한참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철물점을 바라보았다.

‘열쇠 철물 공구’

나는 차에서 내려 철물점으로 들어갔다.

“아저씨 이 열쇠 복사 되요?”

“어디보자... 이런 건 금방 되요. 잠깐만 앉아 있어요.”

아저씨는 쓱쓱쓱 몇 번 갈더니 나에게 열쇠를 건넸다. 나는 그 열쇠를 겹쳐 보았다.

“딱 맞죠?”

“네 어쩜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철물점을 나와서 차를 몰아 읍내 우체국으로 향했다.

다시 농협 마트로 돌아왔을 때 카페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어디 다녀왔어? 내 핸드폰도 차 안에 뒀는데. 나 두고 도망갔나 했네.”

“미안해요. 언니.”

카페 언니는 한 숨을 돌리며 내 옆자리에 타고는 안전벨트를 맸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시장에 두고 온 거라도 있어?”

“아뇨 남산에 두고 온 사람이 있어서요.”

“뭔 소리야?”

“집 나간 돌쇠가 있는데 혹시 열쇠 없어 못 들어오나 걱정 되서 잠깐 다녀 왔어요.”

“자기 정말 언제부턴가 느낀 건데 정상은 아니야.”

다음 날 나는 발코니 끝에 걸터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글을 쓰고 있었다. 언니가 조용히 다가 와 내 옆에 앉았다.

“초록빛은 이때가 제일 좋아.”

나는 언니 말에 의아한 듯 옆을 쳐다봤다.

“라식 수술이라도 했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러게, 이제 보니 좀 보이네.”

나는 고개를 다시 돌려 녹차 발 아래 언니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았다.

“작년 엄마 사고 나고 나도 힘들었고... 수고 많았어.”

“응 말로 말고 돈으로..”

“넌 내 동생이지만 싸가지가 없어서 참 좋아. 저기 저 은행잎 말이야 애들 고사리손 같은데 올 가을 되면 또 어떻게 변할까?

“작년에 방에 틀어 박혀서 못 본거지?”

언니는 다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와 다시 내 옆에 앉았다.

“나 글 좀 쓰려는데 언니 옆에 와서 나 기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다 모르겠고. 너처럼 글 쓰면 어떤 글이 써지나 궁금해서.”

우리 두 자매는 한참 동안이나 녹차 발 아래로 펼쳐진 연두빛 벌판을 바라보았다. 난간에 걸쳐진 하얀 종아리 네 개가 왔다갔다 어지럽게 그네를 탔다.

2026. 4. 29

이상훈

helpanimal@daum.net